

교수회 총회 10월이후로 연기

제도·선거시기 둘러싼 논란예상 공청회개최... 총학서 분위기 주도

총장선출제도 확정을 위한 89학년도 제2학기 전체교수회(의장=김정호)가 오는 10월이후로 잠정연기됐다. <관련기사11면>

지난 18일 열리기로 했던 전체교수회는 이날 오전 9시 40분 본국관(L301)에서 89학년도 제2학기 서울캠퍼스교

수회 학사보국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단 한차례도 「민주적 총장 선출을 위한 연석회의」(교수, 학생, 직원, 대학원생)를 가지지 않은 교수회는 「부적위선출방식」을 규정함으로써 상정, 이날 학생, 직원참여방식을 사실상 수용기 어렵게

되자 좀더 신중히 선출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전체교수회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학기에는 총장 선출제도의 선거시기를 놓고 논란이 크게 일 것으로 보이며 총장후보자에 대한 인공구상 또한 주목된다. 이는 일 반적 의견이다.

「민주적 총장선출을 위한 제2차 공청회」가 지난 8일 오후 2시 총학생회 주최 학자부위원회의 주관으로 본국관(L101)에서 학생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학원 부학생회장 이남석(정치·역사과정)은 인사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1차공청회 결과보고, 각 단체인 의견발표, 주제토론, 방청객참여조항토론이 있었다.

상징탑 「코끼리」로

건립추진위구성...9월착공

경주캠퍼스 상징탑으로 청동코끼리상이 결정되는 9월달순경 착공하게 된다.

지난 6일부터 상징탑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경주캠퍼스 총학생회장·이종현·국문4)와 자문위원회의(위원장=김현우·부총장)로 구성된 실무위는 5차례에 걸친 연석회의와 상징탑을 본교의 상징동물인 청동코끼리상으로 최종결정했다.

이날 코끼리상건립추진위원회는 총 1억원으로 학생 40% 교수·직원·동문 30% 학교당국 30%의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

현재 확보된 금액은 경주

캠퍼스 5대총학생회 예비비 불교도연합회의 발가발표회시 모금한기금등 총 2백96만 1천 5백원이며 여기에 학생들의 등록금과 함께 1인당 3천 원을 징수하고 학생자치기구장학금의 10%를 상징탑기금으로 공제할 예정이다.

교수·직원·동문·학교당국은 기부금형식으로 기금을 마련할 예정이며 상징탑의 모델은 청동코끼리상으로 코끼리높이가 3m, 길이 5m이고 아래좌대는 화강암으로 높이 4m이며 주위에는 연못 분수등의 조경시설을 갖춘 계획이다.

본교 89학년도 예산이 총 3백31억 3천 9백38만원으로 공개됐다.

기획조정실에서는 「89년도 학교비밀 기성회비 자금운용예산 공고」를 통해 설립초유로 이를 밝히고 1학기 등록금 등결로 인한 차액은 오는 11월 추경을 갖게 된다.

교비는 70억 6천 2백 3십만 6천원으로 수입부는 남입금 전입금 및 기부금등 고정부채입금 재적립금인출등으로 지출부는 인건비 학생경영, 유형고급자산매입지출 관리운영비등으로 각각 구성됐다.

한편 기성회비는 총 70억 6천 2백 30만 6천원으로 학생경비 연구비 및 예비비등으로 지출된다. 한편 예산공개는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 내역공개의 진지함과 의미성에 실망을 주었다.

89학년도 제2학기등록금이 전계열 6.2%인상됐다.

등록금조정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부터 학교당국의 김태호(행정학) 기획실장과 宋在雲(국문4) 학부처장이, 학생대표로는 김봉준(야간·경영4) 기획부장, 이승민(영문4) 학자부위원장등을 비롯한 경주총학 및 대학원생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일까지 총 5차례의 협상을 가



<지난달 21일 개학으로 전교조 가입교사들의 「교원투쟁」이 잇따르는 가운데 중·고교 학생들이 지지시위를 벌여 그 파문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총3백31억 예산 첫 공개

2학기 등록금 6.2%인상

본교 89학년도 예산이 총 3백31억 3천 9백38만원으로 공개됐다.

기획조정실에서는 「89년도 학교비밀 기성회비 자금운용예산 공고」를 통해 설립초유로 이를 밝히고 1학기 등록금 등결로 인한 차액은 오는 11월 추경을 갖게 된다.

교비는 70억 6천 2백 3십만 6천원으로 수입부는 남입금 전입금 및 기부금등 고정부채입금 재적립금인출등으로 지출부는 인건비 학생경영, 유형고급자산매입지출 관리운영비등으로 각각 구성됐다.

한편 기성회비는 총 70억 6천 2백 30만 6천원으로 학생경비 연구비 및 예비비등으로 지출된다. 한편 예산공개는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 내역공개의 진지함과 의미성에 실망을 주었다.

89학년도 제2학기등록금이 전계열 6.2%인상됐다.

등록금조정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부터 학교당국의 김태호(행정학) 기획실장과 宋在雲(국문4) 학부처장이, 학생대표로는 김봉준(야간·경영4) 기획부장, 이승민(영문4) 학자부위원장등을 비롯한 경주총학 및 대학원생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일까지 총 5차례의 협상을 가

마음에서 총 20개 팀을 구성, 근로봉사와 함께 전교조강연 농민강연, 비디오상영, 문화선전대의 공연등 농촌계몽활동을 벌였다.

경주캠퍼스 하계 농촌으로 봉사활동이 심우회(회장·배승호·분과2) 불교도연합회(회장·진병기·국사4) 학생 55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경북북부권 일대에서 실시됐다.

이번 농·활은 한의대생으로 구성된 심우회가 봉화군 일대의 포도·삼계령 등 10여개마을에서 환자 1천 3백 6십명을 진료하며 의료봉사활동 등도 펼쳤고, 불교도연합회도 봉화군 중대사에서 어린이 자비학교·초청법회·경로잔치등이 행사를 가졌다.

총학생회장 테러당해

교내 반학자투세력 음모 가능성

총학생회장 김성규(사학4) 교내 반학자투세력 음모 가능성

총학생회장 김성규(사학4) 교내 반학자투세력 음모 가능성

총학생회장 김성규(사학4) 교내 반학자투세력 음모 가능성

총학생회장 김성규(사학4) 교내 반학자투세력 음모 가능성

총학생회장 김성규(사학4) 교내 반학자투세력 음모 가능성

총학생회장 김성규(사학4) 교내 반학자투세력 음모 가능성

총학생회장 김성규(사학4) 교내 반학자투세력 음모 가능성

총학생회장 김성규(사학4) 교내 반학자투세력 음모 가능성

총학생회장 김성규(사학4) 교내 반학자투세력 음모 가능성

경주 교수회장에 襲相賢 교수

경주캠퍼스 제2대 교수회장에 襲相賢(한문) 교수가 당선됐다. <인터뷰11면>

지난 6월 7일 오후 3시 원효관(소강당)에서 교수회 정·부회개선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 재직인원 1백 20명중 61명만이 참석, 무작위

투표(교향선출방식)를 실시해 襲相賢교수가 30표, 徐英錫(국문학) 교수가 20표를 각각 얻어 정·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총회는 조정학과 崔相範(조정식물학) 교수가 대외원회 회장단에 의해 선출됐다.

투표(교향선출방식)를 실시해 襲相賢교수가 30표, 徐英錫(국문학) 교수가 20표를 각각 얻어 정·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총회는 조정학과 崔相範(조정식물학) 교수가 대외원회 회장단에 의해 선출됐다.

재단추구체적 활용방안 부재

동국학원임야 교환 의혹 확산

<기사 11면>

보수

百丈野狐

百丈스님이 설법을 할 때에 매번 한 노인이 대중들 사이에 끼어 聽法을 하고 있었다. 대중이 물러가면 그 노인도 물러가곤 했는데, 하루는 갑자기 물러가지 않고 스님앞에 나타나 『저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과거 修行佛에 이산에 있으며 修行을 했는데 어느날 스님이 와 불기를 대修行人道로 因果에 떨어졌습니까?』하는 말에 『不落因果(因果에 안떨어진단다)』라고 했다. 스님도 그말 한마디 잘못한 탓에 五百生이나 이렇게 여우(野狐)로 태어나는 신세가 되었읍니다. 제발 한마디로 정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한다.

百丈스님은 『不落因果(因果에 안떨어지 않단다)』라고 대답해주었다. 그러자 이날에 그 노인은 단박에 깨

不落不昧은 좋다하고 不昧不落은 나쁘다 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인생을 살지 않고 포기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이다. 대수명을 이룩한 사람은 더 이상 살지 않고 죽어간 사람이나? 아니다. 인과에 얽히지 않고 인과를 사는 사람이 부처가 아니었던가?

因果의 道를 잘 알고 그것을 속박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잘 알면서, 아니 알았기 때문에 因果의 關係를 끊고 버려 버린 存在, 그것이 진짜 부처이더냐? 無門스님은 말한다. 野狐의 風流도 百生을 볼줄 알아야 할것 이라고.

李 箕 永

제27회 學術賞 논문모집

본교 학생들의 학구열을 고무하고 학문적 성과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정, 매년 말전수학을 거행은 本學 學術賞이 傳統과 權威의 연륜을 쌓으며 올해로 27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학술상에 동국인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응모요령

人文科學賞
社會科學賞
自然科學賞

모집분야

원고매수=人文·社會·自然科學 3개분야 모두 2백자 원고지 60매내외로 지도교수의 추천 및 소속과 학과는 표시하지 않음

응모자격=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에 한함
심사위원=本學에서 위촉하며 당선자발표와 함께 공고시 상=상장및상금(분야별당선자20만원·가차15만원)

제출기간=10월 2일부터 6일까지 본사에서 접수
당선발표=10월 18일 本學에서

동대신문사

민족의 슬기와 번영의 염원 - 코오롱 21세기

“코오롱의 첨단기술로 펼쳐지는 21세기 인류의 비전”

纖維産業	化學産業	機械·電子産業	貿易産業	建設産業	서비스産業
------	------	---------	------	------	-------

첨단산업과 기술개발 경쟁이 날로 치열해져가는 지구촌의 오늘— 섬유, 화학, 기계전자, 건설, 무역 그리고 레저, 유통산업까지 주요 산업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룩해온 코오롱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내일의 첨단산업을 앞서 개척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민족의 슬기 모아 21세기 민족번영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의 코오롱— 열심히 땀 흘려 21세기 민족 번영의 염원을 기필코 실현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오롱 섬유기술이 삼천리와 아라비드 섬유를 포함한 새로운 신소재 개발로 우수시대의 첨단 섬유과학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첨단인형 플라스틱 등 최첨단 신소재 개발을 위한, 정밀화학의 성장동력 연구에 코오롱이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합성섬유 신소재·비인형 섬유를 코오롱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부패로 핵탄탄에서 마약까지, 21세기 인류의 번영을 위한 코오롱의 노력은, 아슬아슬한 코오롱의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선의 지진사 기하학, 조선의 해안선과 도로, 한반도 유산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코오롱의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번영을 위한 코오롱의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주)코오롱·코오롱상사(주)·코오롱건설(주)·코오롱유회(주)·코오롱엔지니어링(주)
인국연경(주)·인국외박(주)·코오롱호텔·코오롱지(주)·코오롱세이렌(주)
고려나일린(주)·삼정산업(주)·코오롱-베트남보험(주)

社說

총장선출은 민주·공개 원칙을 각 주체 참여 보장한 제도 마련해야

전체교수회는 총장선출제도 확정을 오는 10월 이후로 잠정 연기했다. 순조로운 제도진행이란 총회로 예정됐던 지난 18일 총장선출 제도에 대해 민주적인 결론을 내리고 본격적으로 선거준비작업에 착수해야 체계가 잡힌다.

물론 내용을 간과한 형식 절차 위주의 사고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 18일 교수회의 제 2학기 학사보고 석상에서 발표된 정기총회 연기 이유에서 총장선출과정에 교수, 학생, 직원, 동문들이 참가요구를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선출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수회 단독으로 제도를 확정하면 학생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므로 학회는 교수회가 자신감을 잃고 이미 자체제도에 대해 속박을 잃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질적으로 교수회가 준비한 총장선출안은 지난 1월 26일 서울·경주교수 대의원 연석회의를 갖고 마련한 「무작위 선출방식」-이론과 교향선출방식-의 「총장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안」이라 볼 수 있다.

바로 이 「무작위 선출방식」의 명칭은 학원의 전체적 참여가 배제된다는 사실이 지명적이다.

현재의 東國은 3자연석회의, 구속기자·필자 즉각 석방하라

구속기자·필자 즉각 석방하라

참언론 지향은 대학언론의 사명

언론부장관의 대학언론에 관한 이른바 「5·6조치」 이후 언론권은 「과정·용공」이 배제된다는 울가미를 씌워 연이은 대학언론기자, 필자의 수배·구속과 함께 이를 강행해 오고 있다.

현재 대학언론과 관련된 14명 대신, 외국보안법상의 「이적단체교부·찬양·위반과」 「이적단체교부·배우」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탄압은 언론인으로서의 자유를 위협하고, 언론의 공익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언론의 공익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갖은 탄압의 명분이 되고있는 공안정국 특이 국가보안법의 성격을 무시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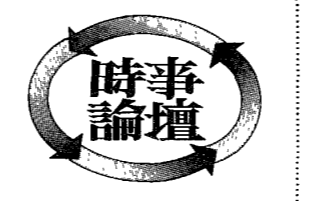
이 법의 「한국국민단체」가 구상된다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한국국민단체를 이롭게 한 자를 처벌한다. 이는 애매모호한 규정은 얼마든지 정권의 시각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이 법이 이승만정권이래 역대 정권 하에서 민중의 자유로운 통일 논의, 정부정책비판, 생중전화보 요구를 용납하지 않는 정치탄

"밀입북, 악용보다" 교류 확대, 에 머리쓰라

한반도가 분단된 지 벌써 44년이 넘었다. 8.15일에는 유엔이 곧 해소될 것으로 기대됐으며 이러한 기대에서 신막 5년째도 너무 길다고 반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때의 기대와는 달리 곧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던 분단이 44년이 넘도록 해소되지 않고 분단은 남북의 기득권 형성으로 더욱 어렵게 되어 통일언제 될 지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일제 36년간 이라고 하지만 분단 44년을 생각할 때 일제의 식민통치보다도 더욱 장기간 분단이 지속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점차 분단상태에 인내심을 잃고 어떤 방법을 쓰든 분단을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참는 것도 한도가 있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지난번 통일환독사, 황석영, 유원호씨, 서경원의원, 임수경씨등의 비밀방북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게 된 것도 국민들이 분단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강한 반



송건호 <한겨레신문 대표이사>

「창구 일원화」라지만 사실은 「완전장악」 민간통로 사실상 봉쇄... 입북유도한셈

「상호비방보다 체제 초월 7.4정신 잇자」

발실리의 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젊은세대 사이에 반미의식이 높아진 것도 그들이 분단을 지속시키는 큰 원인의 하나라고 보는 때문이다. 분단은 표면 이유로는 그 원인이 사상대립 즉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되어 있으나 사상대립이란 어디까지나 명분일 뿐 참이유는 남북간에 구축된 기득권의 옹호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한다. 즉, 분단지속의 가장 큰 원인은 이권유지·옹호가 가장 큰 원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외세와 한반도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도 누구를 방위할 주자냐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제나라의 이익을 지키고자 한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남북통일전에 가까운 민족이 40여년간 고통을 받았고 가장 큰 원인은 민족 내부의 일부 기득권층과 한반도의 분단 속에서 제나라의 이익을 찾고 있는 외세의 방해 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런 엄청난 기득권을 누리는 특수층이므로 이들은 자기들의 특권이 오히려 분단유지 속에서만 유지된다고 보고 통일실현에 소도 이미 수신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타협적의 하나로 나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다. 즉, 통일문제와 논의는 여기에 해결책이 걸려있는 국민들에게 개방하여 남북을 재결합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논의케 하되 다만 남북이 실제 접촉하는 문제는 정부에 맡긴다는 방법이 좋지않을까 하는 것이다.

논의의 자유는 인정하되 대북 창구는 당국으로 기득권화하는 것이 어렵겠느냐 하는 의견이다. 그러나 총자는 이러한 연이 반 대하는 의견도 있다. 즉 집권층

이들 특권층에 통일문제를 맡긴다면 분단의 극복문제는 부지하 세월이 되어 집권층에 대한 강한 탄압을 가지는 층도 있어 어떻게 생각하는 사교가 밀입북을 강행하게 하는 동기가 된 것이 아닌가 한다.

허여간 오늘날 의식있는 많은 국민들은 더이상 남북의 대결로 일부 특권층을 위한 불필요한 고통을 계속 받고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들의 밀입북을 보완법이라는 한때 폐기를 정하고 또 N C C나 사제단 등 신규교 증과 단체에서 폐기를 강하게 주장하는 법으로 금지하는 대외보다도 남북교류 방안을 강구하여 중국

東國漫評

「밀입에 방해가 되어서」

「통일에 방해가 되어서」

◇담의 목을 비트는 까닭은?



「각 주체의 다각적 참여 보장」

다가올 총장선거를 바라보며

만물이 총성하다는 녹음의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우들의 관심과 초점은 얼마남지 않은 유지를 향해 있다. 총장선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 듯 하다.

글을 쓰러니 얼마만큼 객관적인 눈과 사고력으로 통찰하는 것이 어렵겠느냐 하는 의견이다. 그러나 총자는 이러한 연이 반 대하는 의견도 있다. 즉 집권층

한 단결과 화합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총장선거의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1, 2차 공청회를 중심으로 학교당국과 몇몇 교수님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들은 통찰의 앞날을 어둠에 하고 있다.

예를들어 두차례의 공청회에서 불수있었던 참석교수님들의 무례한 언행과 화합의 모습과 발전은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총장선거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참여가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

역사속에서 그러하였듯이 민중의 힘은 거대하다 하지만 어느 일인의 성실과 헌신성만으로 일을 성사시킬 수 없다. 다시말해 거대한 힘과 지혜를 가진 민중들이 단결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역사와 사회의 주체로 서야 할 통찰과 학우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통찰의 대미미 지도자를 옹립해야 한다는 의미속에서 총장선거를 중심으로 몇몇 학우들의 헌신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숙연해 진다. 그러나 대부분 학우들의 비판과 지적이 너무 느슨하게 있었더라는 사실이다. 공적으로 총장선거 기간을 준 비하는 일련의 모습들은 참으로 어이없게도 적었다.

물론 교수님들이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통찰의 발전과 학문적 승화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고와 힘을 아끼지 않는 교수님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학원에서 총장의 지휘와 역할이 왜 중요하기하는 것은 일일 연구와 진리의 정당을 구현하고 자 하는 학문적 입장에서 출발한 단결과 화합의 모습과 발전은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총장선거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참여가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

역사속에서 그러하였듯이 민중의 힘은 거대하다 하지만 어느 일인의 성실과 헌신성만으로 일을 성사시킬 수 없다. 다시말해 거대한 힘과 지혜를 가진 민중들이 단결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역사와 사회의 주체로 서야 할 통찰과 학우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통찰의 대미미 지도자를 옹립해야 한다는 의미속에서 총장선거를 중심으로 몇몇 학우들의 헌신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숙연해 진다. 그러나 대부분 학우들의 비판과 지적이 너무 느슨하게 있었더라는 사실이다. 공적으로 총장선거 기간을 준 비하는 일련의 모습들은 참으로 어이없게도 적었다.

물론 교수님들이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통찰의 발전과 학문적 승화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고와 힘을 아끼지 않는 교수님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학원에서 총장의 지휘와 역할이 왜 중요하기하는 것은 일일 연구와 진리의 정당을 구현하고 자 하는 학문적 입장에서 출발한 단결과 화합의 모습과 발전은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총장선거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참여가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

학생증 재발급 안내

1989학년도 제 2학기 학생증 재발급을 별첨 서신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학생은 착오 없기 바랍니다.

1. 학생증 재발급 대상
 - ① 재학생증 학생증 분실자
 - ② 복학생 및 재입학생
2. 발급절차: 학생증 발급신청서 교부-장학과
3. 신청서 접수시 유의사항
 - ① 학생증 분실자: 신청서 접수시 재발급 수수료(W1,000)를 경리과에 납부한후 등록금 납입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할 것
 - ② 복 학생: 등록금 납입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할 것
4. 발급기간: 1989년 8월 21일 ~ 1989년 9월 13일

1989년 8월 21일

납입금 수납안내

1989학년도 제2학기분 학부 재학생 납입금을 아래와 같이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수납기간: 1989년 8월 16일 ~ 8월 25일 (10일간)
2. 수납처: 조흥은행 및 국민은행 전국 각지점
3. 수납방법
 - ① 학교에서 우송된 고지서로 납입하여야 함
 - ② 장학금 수혜자중 고지서에 납입금액이 전산으로 감액 처리된 학생은 수납은행 전국 각 지점에 납입할 수 있으나, 감액 처리되지 않은 학생은 장학금 지급 의뢰서와 함께 아래의 별도 지정 수납처에서 감액 수정하여 납입하여야 함 <별도지정 수납처>

서울캠퍼스: 조흥은행 종로지점, 국민은행 충무로지점
경주캠퍼스: 경주캠퍼스 경리과

복학 및 재입학안내

1989학년도 제2학기 복학 및 재입학업무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다 음

1. 신청기간: 1989년 8월 21일(월) ~ 8월 23일(수)
2. 접수처: 학 적 과
3. 구비서류
 - 가. 일반복학자 및 재입학자: 복학(재입학)원서 1부
 - 나. 군복학자: 복학원서,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다. 전역예정자: 복학원서, 전역예정증명서 각 1부
4. 자 격
 - 가. 복 학: 학사내규 4-(2)-1), 2)항에 의거 휴학기간이 만료된다. 또는 군입영 휴학자로서 개학일로부터 30일 이내 (89. 9. 19)에 전역한다. 다만 전역예정일까지 전역하지 못한자는 사유에 관계없이 복학이 취소된다.
 - 나. 재입학: 1) 학칙 제 53조 ① ③호의 사유로 제정된자는 제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제정되었던 동일학년에 여석이 있을때 재입학을 허가한다. 다만, 81학년도 이전입학자로서 제정된자는 제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결원에 관계없이 재입학을 허가한다. (재입학 허용기간은 군복무기간도 포함)

대학원 연구논문집

논문모집

본대학원 89학년도 대학원 연구논문집(제 19집)을 발간하고자 다음과 같이 원고를 모집합니다.

1. 논문집명칭: 동국대학교 대학원 연구논문집 (제19집)
2. 투고대상: 본 대학원 교수, 석·박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
3. 원고매수: 700자원고지 36매 내외(영문 요약 및 도표포함)
4. WORDPROCESS도 가능
5. 원고제출부수: 원본포함 4부
6. 논문모집기간: '89. 6. 1 (목) ~ 8. 31 (목) 까지
7. 제출처: 대학원 교학과

기타 상세한 것은 대학원 교학과 (직통 275-3256, 교번 2253-22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89년 5월 일

대 학 원 장

예비군 보충교육 소집

예비군설치법 제 6조 및 동시행령 13조에 의거, 1차 기본교육보충자에 대한 보충교육을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1. 교육 대상
 - 가. 89년 6월 고대실시 기본교육 무단 불참자
 - 나. 추가전입(결성)자로서 8시간 미달자
 - 다. 신고불참자(중병서함부 인가신고자 8H)
2. 교육일시 및 장소

교육일	교육장소(집합장소)	과 목	특징 및 휴대품
89. 9월 1일(목) 08:00-17:00 (8H)	동국대 L101 (시정각실)	정신교육: 4H 예비군특성교육: 4H	예비군복무대, 학생증, 훈련통지서, 증식, 필기구, 병역수첩 (교육받은 4H)
89년 9월 2일(토) 08:00-12:00 (4H)	동국대 L101 (시정각실)	정신교육: 2H 아외훈련: 2H	사할 (탄입반도복)
3. 유의사항
 - △위의 2일간 교육일지에 집합시간 필히 준수(07:50분까지 도착)
 - △지연도착 및 교육종 무인이탈자는 당일 전체 교육을 불참으로 처리함
 - △대상자 전원은 89년 8월 23일(수) 전까지 예비군연락처에서 (해화관 1층) 인정지점, 보충교육소집통지서를 필히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수령도 가능)
 - △이번 보충교육은 마지막 기회이며 훈련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거나 교육불참시는 자동교발조치(지역으로 전출후에도 교육시간비탈 2배이상에 준하는 교육을 받음)

1989년 8월 일

동국대학교 예비군연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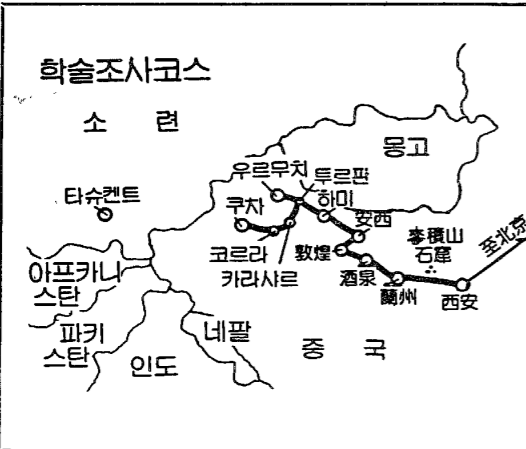
총 무 처 장

1989년 8월 일

교 무 처 장

1989년 8월 일

실크로드를 가다—①역사



본고 박물관이 주축이 된 중국불교 문화 유적조사단이 지난 5월 5일~6월 5일까지 실크로드(비단길)를 탐사, 우리 불교문화의 수용과 교류과정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신라시대의 고승인 혜초(慧超)가 걸었던 구법(求法)의 길, 서안(西安)→천수(天水)→난주(蘭州)→주전(酒泉)→둔황(敦煌)→안서(安西)→하미→투르판→쿠차→우루무치에 이르는 천산남로를 따라 조사했다. 이에 본문에서는 학술조사에 참가했던 조영록(사학과) 교수의 「실크로드의 역사」, 형기주(지리교육과) 교수의 「실크로드의 지리」, 문명내(미술학과) 교수의 「실크로드와 불교미술」의 순으로 3회에 걸쳐 실는다.

를 수행하게 하였다. 드디어 이 장군의 원정군이 수천명의 전마를 끌고오자 무제는 기뻐서<서극천마가(西極天馬歌)>를 지어 부름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다.

3. 중국의 서역경영

이리하여 타림분지 외곽을 점령한 오아시스 여러나라들은 모두 한에 복속하게 되었으며 파미르고원 서방 제국도 한 제국에 위압당하게 되었다. 무제는 둔황에 도위(都尉)를 두고 천산남로의 툴타이와 구말라에는 둔황을 설치하여 서역을 지나는 사신에게 식량과 말먹이를 공급하게 하였으며 또 하서에서 로프를 이르는 노상 곳곳에 망루를 설치하여 교통안전을 도모케 하였는데 망루의 도피된 모습은 오늘날 서역을 찾는 이에

그후 동서는 실크로드를 통하여 사절을 서로 교환하고 대상을 조직하여 문물의 교류를 계속하였다. 문물의 교류는 특히 당대에 전성기를 맞게 되어 상인은 물론 서방 호인(胡人)의 왕래도 잦아 그들중 당조에 벼슬하는 이도 적지않았다. 남북조시대의 구마라집이 쿠차로 부터 오고 현 장법사를 위시한 스님네의 구법 순례행각이 계속되었다. 혜초를 비롯한 신라승려의 구법순례도 당시에 행해졌다.

이후 실크로드는 동고제국의 동유럽 침공으로 한때 막혔던 동서의 장벽이 풀리는 했지만 무역로 대신 주로 군사적인 교통로로 이용되었다. 몽고에 왔다가 이태리로 돌아가<동방견문록>을 저술한 마르코 폴로, 로마 교황 베네딕토 7세의 사행으로 대도(大都)를 방문한 마르코폴로를 비

동·서 문화교류의 강줄기 이뤄

1. 실크로드와 동서 문화의 교류

인류의 역사는 외부세계와의 교섭없이 결코 성립될 수 없다. 실크로드도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세계와 서방세계와의 교통로로서 인류문화에 기여한바 크다는 사실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 동서교류를 크게 구별하면 육로와 해로를 들 수 있으며 육로는 다시 초원의 길과 비단길로 나눌 수 있다.

비단길 즉 실크로드-는 독일의 지리학자 리히트 호엘이 그의 저서<중국>에서 중국의 비단이 이길따라 서방세계로 전하여졌다는데서 명명된 이래 일반적으로 쓰이게 된 것이다. 실크로드-는 중국의 서안(西安)에서 출발하여 하서(河西)를 거쳐 서역 파키스탄 인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 소련의 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넓고도 험난한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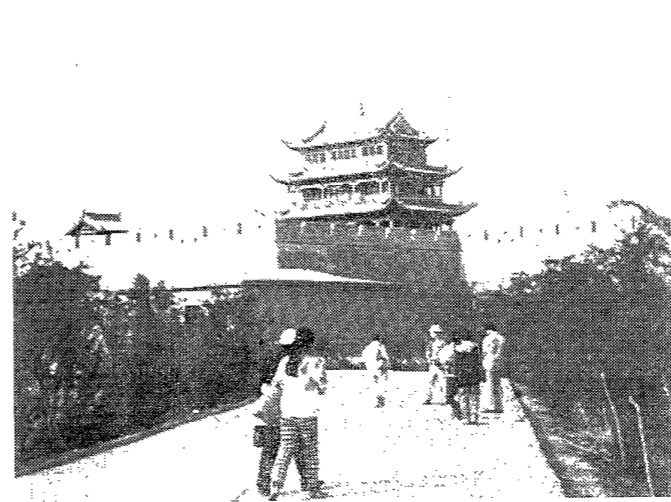
이길따라 중국의 비단과 차도자기를 중국의 특산물인 물과 사방으로 전했으며 서쪽으로 부터는 아라비아산 말과 비파 호박 등의 화물, 그리고 호도 포도 호박(胡瓜) 등 호자가 붙은 것들이 유유히 흘러 들어온 것이다. 불교의 전래는 말한 것에도 그렇다. 당(唐) 때에는 대진국(대조) 등 동로-마제국으로부터 기독교의 일파인 네스토리우스교(景教)가 전래하여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진 <대진국교유적(대조비)>가 오늘날까지 남아 당시 국제도시로서의 찬란했던 장안(長安·오늘의西安)의 옛 모습을 짐작케 한다.

이 실크로드-의 북방으로 전개되는 다른 하나의 교섭로, 소련의 중앙아시아 초원지대에서의 몽고와 중국으로 이어지는 초원의 길이다. 초원의 길은 B C 7~2세기에 걸쳐 스키타이(Scythians) 민족들에 의해서 개척되어 당시 흉노(匈奴)에 유교되고 있었던 배스파르(Parthians)와 북방 기마민족계의 금속문화를 동아시아로 전파해준 역사적 기능을 담당할 교섭로이다. 그러나 실크로드-는 초원의 길에 뒤이어 한(漢) 제국에 의하여 개척 경영된 것이다.

이제 실크로드-가 어떻게 개척되고 또 이 교섭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의 서역경영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자.



쿠차의 스바사(古城址)에 선 조사단원들. 좌로부터 형기주, 조영록, 문명내 교수.



중국만리장성의 서쪽 끝인 가국관. 이곳이 실크로드의 관문이다.

신라승 혜초의 구법발자취 곳곳에 남아 우리문화의 흔적 찾으려는 노력 고양돼야

2. 장건의 서역개척

실크로드-는 B C 139~126년 사이에 한 무제의 사신으로 서역에 간 장건에 의하여 개척되었다. 사행의 목적은 한이 흉노에게 쫓겨 서쪽으로 달아난 월지(月氏)와 동맹하여 흉노를 멸망하려는 계략 때문이었다. 그러나 월지는 파미르고원 넘어 쿠사나 왕국을 세워 투루키스탄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흉노에 대한 원한을 잊은지 오래여서 장건의 군사적 사행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10여년이 걸린 사행의 필사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듯했으나 그가 겪었던 서역의 지리 풍속 문화 등을 이 때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보고내용은 무제의 호기심과 서방진출의욕을 자극하고 남음이 있었다. 그러나 동서교류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북방의 유목민족에 대한 제압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어떤 역사학자는 중국의 역사를 『북방민족과의 대립과 투쟁의 역사』라고 말한 바 있

다. 사실 중국사의 전개에 있어 북방의 유목민족과의 관계야말로 매우 중요한 것은 진시황제에 의해 촉조되어 오늘날까지 그 영향을 끼치는 만리장성이 이를 대변해 준다. 한의 무제가 장건을 파견하였던 일이 역시 대흥노정적의 일환이었거나 일단 장건의 보고를 접하자 무제는 장군 위청(衛青) 막거병(衛去病)을 보내어 갈축(甘肅) 지방의 흉노를 쳐 무위(無威)를 제압하고 하서사군(河西四郡)을 설치하였다. 하서지방은 중국과 서역에 있는 다리이며 실크로드-의 인후부에 해당되는 곳이다.

하서지방을 확보한 무제는 이판리(李廣利) 장군을 파견하여 갈축(甘肅) 지방의 흉노를 쳐 무위(無威)를 제압하고 하서사군(河西四郡)을 설치하였다. 하서지방은 중국과 서역에 있는 다리이며 실크로드-의 인후부에 해당되는 곳이다. 하서지방을 확보한 무제는 이판리(李廣利) 장군을 파견하여 갈축(甘肅) 지방의 흉노를 쳐 무위(無威)를 제압하고 하서사군(河西四郡)을 설치하였다. 하서지방은 중국과 서역에 있는 다리이며 실크로드-의 인후부에 해당되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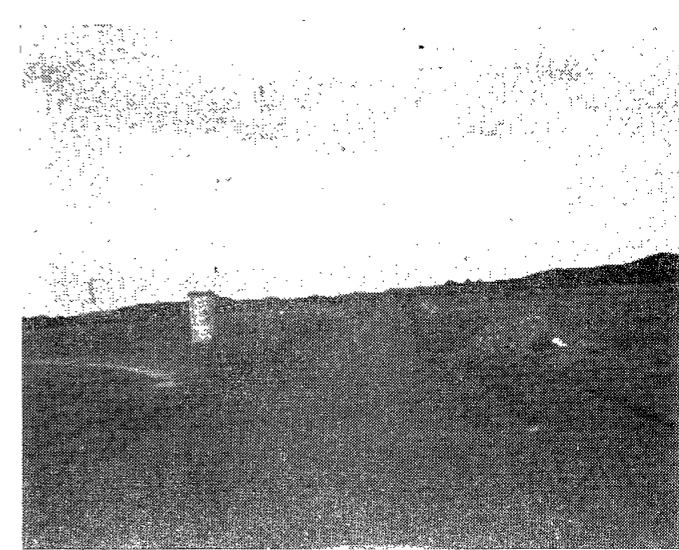
한 서역개척 당시의 상황을 속삭여준다. 갈축(甘肅) 지방에서 타림분지에 이르는 오아시스 연결된 서역지방은 유목민과 농경민 사이에 그 세력변화에 따라 지배권갈등이 반복되었다. 한 말에는 흉노 세력의 최후로 말미암아 오아시스 제국이 서로 독립하여 전성기를 맞이하나 사차 선선(선선)에 기 쿠차국 등이 그 대표적 예다.

그러나 후한 명제(明帝) 시대 시 반초(班超)의 서역진출이 있 게 됨으로써 사정은 달라진다. 그것은 북 흉노가 서역제국을 위협하면서 하서지방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후한은 하서를 회복할 목적으로 서역 개척을 추진하였다. 장건의 대원의 병마 환혈(汗血馬)에 관한 보고는 특히 무제의 대원정병을 심하게 자극한 요인이었다. 충사령관에 이판리(李廣利) 장군을 임명하고 그에게 수만명의 거느 리게하여 투차(吐火)나 밀고 험난한 오아시스와 사막을 따라 대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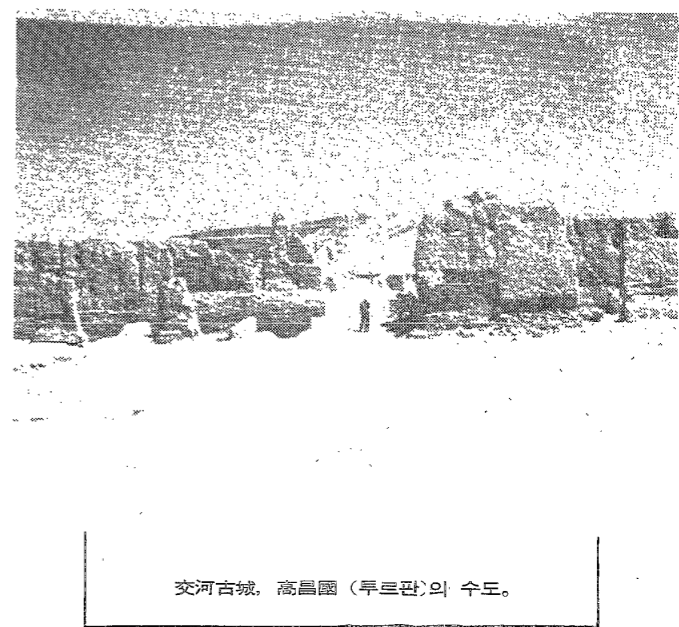
병을 수백여 척을 이끌고 서역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후한 명제(明帝) 시대 시 반초(班超)의 서역진출이 있 게 됨으로써 사정은 달라진다. 그것은 북 흉노가 서역제국을 위협하면서 하서지방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후한은 하서를 회복할 목적으로 서역 개척을 추진하였다. 장건의 대원의 병마 환혈(汗血馬)에 관한 보고는 특히 무제의 대원정병을 심하게 자극한 요인이었다. 충사령관에 이판리(李廣利) 장군을 임명하고 그에게 수만명의 거느 리게하여 투차(吐火)나 밀고 험난한 오아시스와 사막을 따라 대원정

4. 우리의 역사와 실크로드

지금까지 주로 중국의 입장에서 실크로드-를 살펴본 것 같으나 일본의 고지(高志)에서 보여 주는 서역문화의 요소가 이를 대변해 준다. 특히 우리의 경우 실크로드-와 관계가 깊다. <왕오천축국전>으로 유명한 혜초는 바다로 갔다가 오아시스국가를 따라 돌아 온 대표적 승려이며, 이 밖에도 대 여섯명의 스님들이 순례를 마치고 인도에 머물거나 혹은 귀국에 앞장섰고 있었다. 고신지(高仙芝) 장군이 또한 그 려다. 고신지는 고구려 유민으로 서 양의 안서도호부에 소속하면 서 타크라마칸 사막지대를 정복



敦煌에서 투르판으로 이어지는 실크로드.



交河古城, 高昌國(투르판)의 수도.

드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념의 대립으로 양국은 통교가 오래막혀 왔으며 이른바 주제적 화문을 고집하는 북한은 불교유적 조사와 같은 순수학술분야에는 냉담하여 서역에 온 조선족(중국에서 이렇게 표현한다)으로서의 우리 임행이 아마도 첫 손님이 아닐까 한다.

우리가 그러고 있는 사이 일본이 재빨리 뛰어 들었다. (실크로드-의 나라(奈良), (장안과 나라)를 직접 연결하면서 자기네의 문화적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일본은 서안의 황제(黃帝)나 청동(靑銅)이 일본 불교와 관계가 있다고 하여 벌써 일본 사찰의 명세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문화의 막고갈도 마찬가지다. 문화연구원의 부원장마저도 혜초 스님이나 <왕오천축국전>을 아는 바 없다고 하여 우리를 실수케 하면서 박물관에는 일본인 모모가 석굴의 보수를 위하여 얼마를 회사하였다는 내용의 보도가 또한 우리의 마음을 서늘하게 하는 것이었다. 5월 5일에서 6월 5일까지 한달간의 실크로드- 탐사(가)급인기)는 6·4 사태를 빚고 말았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과거와 현재의 생생한 역사를 지켜 보면서 이러한 중국의 변화가 앞으로 양국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바라는 마음 간절할 뿐이었다.

조영록 <문과대 사학과교수>

우리의 가슴에 우뚝설 흰 코끼리

우리가 만드는 정성이며 자랑입니다

역사를 만드는 일은 한사람이 하기엔 힘든 것입니다. 동국의 큰빛 내린지 한세기- 어디서나 곳곳하게 버티어 서서 웅비하는 모교를 더욱 찬란히 하는 일에 힘을 모아 봅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자랑스런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동국의 구심점은 상징탑 건립으로! 상징탑 건립하여 동국위상정립하자!

온라인구좌 <우체국 703538-0004730(진빙길)> <조흥은행 804-6-138264(진빙길)> <농협 749-12-085796(진빙길)>

동국인 모두의 성원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상징탑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종현(총학생회장), 부위원장: 진병(공부부장)
경주경주시 석장동707 (0561) 2-0131~64493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상징탑건립추진위원회

시사영어학원

주 3일

월	수	금
월	목	금
화	목	금
화	수	금

편리한 요일로 3일만 선택하세요

英·日·中 TOEFL 600 GRE 2000

강사: 권영민 · 종로2가 · 734-2442

외국어 교육 최고의 자부심

파고다외국어학원

외국어 학습 성공자중에 외국어 정복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구하면 "제대로 외국어 배우려면 파고다 외국어학원에 다녀야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발견하게 된다. (특히 지식인 층에서) 이것은 바쁜 시간을 쪼개어 학원을 찾는 수강생들에게 하루하루 성취감을 주는 파고다학원의 모두가 강의시간 시간마다 진지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강 첫날, 최고의 교수진이 펼쳐는 명쾌한 강의가 외국어 정복의 자신감을 준다.

종로2가 파고다공원 건너편 흰빌딩
274-4000, 274-6821-2

I CAN DO

1. 지역의식과 지역 갈등

민주화 시대를 맞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사회는 커다란 격동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격변의 과정 속에서 사회 각 부문의 내지는 집단간의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변동과 갈등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나 끊임없는 변화의 질곡속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분출현상은 기피할 수 없는 사회적 사실이다. 마르크스는 갈등이 없다는 발견은 없다고 역설하고 있다. 갈등은 사회발전의 의해서 생성되고 있으며 또한 갈등 자체가 새로운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은 발전지향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의미에서의 갈등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사회발전을 위

기에 관련된 제반문제를 다루어 보고자한다. 지역갈등은 지역감정에서 출발하고 있고 지역감정은 특정지역 내에서의 집단적 의식에서 비롯된다. 지역의식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간에 표출되어 나타나는 의식으로서 이들 특정지역의 고유문화를 반영하는 이미지를 로기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관련된 제반문제를 다루어 보고자한다.

회적 통합을 위한 기제로서 이러한 현상에 근거한 지역갈등 해소책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것은 필자가 관여해 왔고 한국사회학회가 실시한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다. 이 조사는 1988년 10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전국에서 2,020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연구의 표본조사는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대한 거부감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영남·호남의 두지역이 관련되어 있는 지역갈등이 그 정도에 있어서 가장 심하고 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적 대립으로 표현되고 있는 지역갈등이 형성되어 온 원인은 무엇인가? 현재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갈등 내지 지

실질적인 격차가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격차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드러내 보이게 되었다. 경제적 격차의 원인에 대해서 응답자의 대다수(74%)는 정부정책의 지역적 차별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받아들이는 응답자가 호남출신 가운데에서는 83%로 나타났으나 영남출신 가운데에서는 54%로 나타났으며 이

지역주민간의 차이보다 더욱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는 현상은 특정의 요인에 대한 태도에서나 무나 큰 정도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전라도 주민들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정부의 불균형적인 경제정책에 대해서 전라도 주민들은 50%가 이를 중요하게 보고 있으나, 경상도 주민들 가운데에서는 14%

지역에 대기업이 유치되는 방안이다. 이들 정책중에서 지역갈등 해소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응답자들이 지적한것은 경제적인 차원의 정책들이었다. 이 중에서도 호남지역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73%의 지지를 받아서 가장 긍정적인 해소책으로 평가되었고 그 다음으로 경제격차 해소가 69%의 지지를 받았다. 경제적인 차원의 정책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해소책은 민주화(64%) 인종동용의 지역안배(61%) 광주광역시(58%) 지역간 교류증대(55%) 정치지도자들의 세대교체(53%) 동서간 교통시설확충(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정책들은 지역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50%를 넘는 것들이었다.

지역갈등 내재적집단 적대감...그 뿌리 깊다

지역갈등의 실상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제언



김익기 <사회과학대학교·사회조사방법론>

한 지역의식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역감정은 여타 지역(인)에 대해서 갖게되는 부정적이고 편견적인 속성의 심리상태를 일컫는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감정이라기 보다는 주민이 소속된 집단의 영향을 받게되는 것으로서 집단적대감으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집단적대감이 공격성을 고정관념과 합동으로 지역집단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신분 제도에 의한 차별주의 및 지역, 학연, 혈연에 의한 연구주의가 사회에 분과성을 조장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전체의 통합을 저해하여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것은 지난 양대 선거에서 철회한 대립과 갈등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됨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한 것으로도 일컫어지고 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지역갈등의 커다란 산은 우리가 더이상 방관할 수 없는 중대한 사회문제라 부각되었다. 양극화도 마찬가지 일컬어지는 지역갈등은 매우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다. 이는 본문에서는 이러한 지역갈등의 실상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으며 그것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사

「크기에 비례한 확률표집법(PPS Sampling)」을 도입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도별 분포는 서울 24.9%, 경기 14.8%, 강원 4.0%, 충북 3.0%, 충남 7.0%, 전북 6.0%, 전남 9.0%, 경북 12.7%, 경남 16.8% 및 제주 2.0%이다.

2. 지역갈등의 실상과 형성요인

지역갈등은 지역간의 내재적인 집단적대감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현상이다. 이의 바탕이 되고있는 지역감정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심리상태의 내용들로서 함축되어 있다. 여기에는 존경과 경멸, 우호감과 적대감등 허다한 감정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을 일목요연하게 측정해 주는 것으로서 지역주민간의 사회적거리감이 흔히 이용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사회적거리감의 측정을 위해서 4가지의 사회적관계를 살펴보았다. 그것은 가족관계, 친구관계, 근린관계 및 사(社)업관계로서 구체적으로는 가족의 배우자, 가까운 친구, 가까운 이웃 및 사립의 동업자 등으로 조목화되었다. 이들 각각의 항목에 관해서 응답자가 여타 지역주민들에 대해 갖는 거부감이

역감등은 정치, 사회, 경제등 제반요인이 복합하게 얽혀져서 형성되어 왔다. 이 중에서도 특히 영호남간의 지역갈등은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 본 조사를 할 때 삼국시대까지 그 근원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않게(9.2%)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송복교수는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지역갈등은 백제가 삼한을 통일한 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백제와의 투쟁이 지역갈등의 단초가 되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태조 왕건의 「훈요십조」 중 8조에서 풍수지리성을 인용한 차령산맥 이남 지역민에 대한 동등 제한이 지역차별의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 이후 오랜 세월동안의 수많은 사건과 사태가 호남지역을 「백역의 땅」으로 고정관념화시킨 계기가 되어왔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지역갈등이 양극화되기까지 일컬어 지도록 심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에 대해서 응답자들의 대부분(92%)은 1960년대 이후 그 시기를 잡고 있으며 이중 과반수는 민정당시대를 지역갈등 형성의 중요한 시기로 대답하고 있다.

1960년대이후는 정치적으로는 영남에 지역배정을 둔 공화당이 집권하던 시기이며 경제적으로는 성역주인들에게 대해 갖는 거부감이

이들은 지역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세대간에 전승한다는 김해수의 조사보고에 의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지역갈등 형성의 원인에 대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를 알아보자. 전체 응답자의 29%는 정부의 불균형적인 경제발전정책이 지역갈등형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주민간의 편견(24.5%), 정치인의 선거운동(23%), 정부의 편파적인 인사행정(9%), 역사적 배경(8%), 신문 및 방송보도(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지역갈등 형성의 중요원인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는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라도와 경상도의 주민들간에는 이것이 관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라도의 주민들은 불균형적인 정부의 편파적인 인사행정, 정치인의 선거운동, 지역주민간의 편견, 역사적 배경, 신문 및 방송보도의 순으로 그 중요도를 나타내며, 반면에 경상도의 주민들은 지역주민간의 편견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 정치인의 선거운동, 정부의 불균형적인 경제정책, 역사적 배경, 신문 및 방송보도, 정부의 편파적인 인사행정의 순으로 그 중요도를 들고 있다.

이들은 지역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50%를 넘는 것들이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지역갈등 해소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지역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격차 해소에 대해서 호남인들은 77%가 지지를 보였는데 반해 영남인들은 58%만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호남지역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정책은 경상도 주민들의 85%가 긍정적으로 대답한 반면에 영남지역의 경우에는 66%의 지지를 보였는데 그쳐 이 정책에 대한 것이다. 지역갈등은 그 역사적 뿌리가 깊고 형성요인이 다

예산공개

학원의 발전과 운영의 원동력은 예산에 근거한다. 이렇듯 학원 발전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예산이 학원의 주체인 학생들에게까지 비공개로 편성·집행된 학원의 구조적 모순을 인하여 학생들은 학교발전에서 주체적 참여를 못했는것이 사실이며 또한 학생들의 비리재정운용의 온상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학원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할 수 있는 「예산공개」가 늦으나마 본교에서도 이루어졌다. 지난 학원자주화 투쟁시 합의에 따라 「예산의 공개는 89년 1학기, 즉 88년말에 계획되는 예산부터 공개한다」고해 89년초 「예산공개」가 이루어졌으므로 예산됐으나 등록금 동결부정으로 당초예산에 차액이 생겨 지금 까지 미루다 「89년 하반기 등록금 2.2%인상」합의를 거친후 예산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이 공개한 예산에 따르면 본교의 예산규모는 학교비

2백60억 7천 7백 7만 4천원, 기성회비 70억 6천 2백 3십만 6천 원의 총 3백31억 3천 9백38만 원이다. 그러나 이번 「예산공개」는 예산내역을 항목별로 따져 무엇이 잘못됐는지 불분명하기에 그동안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학교의 예산운용을 바로잡아 운영적자를 최소화하고 학생을 포함한 학교구성 각주체의 의사가 반영되는 공개행정이 되기위한 조건을 성취시켰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예산공개」를 계기로 그동안 문제시 되어 오던 재정비리를 파헤쳐 속속들이 밝혀내고 앞으로는 「서울시정 제육대회」도 시학비로 2백50만 원을 상납」하는 등의 부원칙한 지출을 막는데 학원의 전 주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이 공개된 예산은 1학기 등록금 전면동결로 인한 총 17억원의 차액을 안고있는 채 이의 해결을 위한 재단전입금의 안정적인 확보가 2학기 내중부영의 한 전점으로 부각되어야 하겠다.

정부의 불균형적인 경제발전 정책과 일부 정치인들의 의도적인 정치게임으로 80년대들어 지역갈등이 심화되었다.

어느 정도 인가를 밝혀보았다. 지역주민간의 사회적거리감에 대한 측정의 결과 각 지역 집단별 거부감의 분포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가지의 두드러진 현상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여타 지역주민들의 거부감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비율은 각 지역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 46%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둘째, 경상도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은 전라도 출신주민들의 경우에서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지역출신들에게서는 비교적 낮은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그 수치는 30%와 15%정도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들은 영호남 지역간의 상호 거부와 타지역주민이 호남인에 대해 갖는 거부감의 두가지 현상으로 재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타지역의 여타지역에

기 시작한 시기이다. 1961년에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차지한 박정원은 취약한 정정적 및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역에 기반을 둔 편파적인 인사행정을 실시하여 지역적차별 지역갈등을 가속화시키는 계기를 가져다 주었다. 이어서 등장한 군사정부는 지역적차별을 더욱 심화시켰다. 정전전도 박정원과 마찬가지로 지역연고형 영남지역에 두고 있으면서 취약한 정권을 유지해나가기 위해 편파적인 인사행정을 단행하게 되었다. 한편 영남권을 공명화의 중심지로 삼으면서 이 부어지기 시작한 편파적인 경제개발정책은 영·호남 간의 경제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영·호남지역주민들의 소득에

영남에 지역배정을 둔 공화당이 집권하던 시기이며 경제적으로는 성역주인들에게 대해 갖는 거부감이

이들은 지역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50%를 넘는 것들이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지역갈등 해소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지역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격차 해소에 대해서 호남인들은 77%가 지지를 보였는데 반해 영남인들은 58%만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호남지역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정책은 경상도 주민들의 85%가 긍정적으로 대답한 반면에 영남지역의 경우에는 66%의 지지를 보였는데 그쳐 이 정책에 대한 것이다. 지역갈등은 그 역사적 뿌리가 깊고 형성요인이 다

영남에 지역배정을 둔 공화당이 집권하던 시기이며 경제적으로는 성역주인들에게 대해 갖는 거부감이

레모나-가을센스!

찬 바람이 피부의 윤기를 앗아가는 가을 나들이—
그대의 핸드백 속에 레모나를 준비하셨나요?
레모나는 체내에 잘 흡수되어 피로를 회복시켜 주며, 기미·주근깨 형성을 예방시키고 피부를 부드럽게 가꾸어 주는 비타민C 제제입니다.

가을 바람속 그이에게도 한번 권해보세요.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그대의 센스가 더욱 돋보일거예요.

● 표준소매가격 : 20포 2,000원/240포 23,000원

RM 경남제약주식회사

1. 구호의 시대에서 참여의 시대로

『총장 퇴진!』이라는 구호는 학내 소수파가 절정으로 치달을 때 단발로 등장하는 구호다. 직접적인 구호가 시위에서 등장했다는 것은 이미 상황이 예상되는 것이다. 그러나 구호로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행위의 격렬함을 수반한다. 그러나 이 시도는 수동적이며, 소극적인 의사 표현 방식이다.

88년 이후 대학은 급변하고 있다. 구호의 시대에서 참여의 시대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총장 퇴진!』이라는 구호는 더 이상 완결성을 갖지 못한다.

교수, 학생도, 직원도 총장선출에의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불과 두세년 전만 하더라도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역사발전의 증거인 것이다. 타율과 예측의 한국 대학사가 자율과 자주의 장으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적 진보를 겪고 있다. 과도기는 모순의 첨예화에서 갈등과 대립이 격렬하게 드러나는 시기이다. 지금 대학이 겪고 있는 과도기는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절박한 대학주체의 자기회복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88년 학자투는 참여의 시대에 대한 학생들의 선언이었다. 대량 학적외출은 교육주체인 학생들이 학자투를 통해 이수하고, 그리고 온갖 그간의 학생운동의 흐름으로서의 의의와 일일지 모르지만 여사의 올바른 흐름으로서의 오히려 담담하다. 대학의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사회의, 민족의 모순을 극복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하물며 대학의 모순과 민족의 모순이 다르지 않다는 성찰이 성숙한 현실에서 학자투는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

그러나 선언과 참여사이에는 쉽게 뛰어넘지 못하는 벽이 있으며, 그 벽에 부딪히는 과정에서—지난 학자투의 과정에서—인성적 요소를 잃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학자투는 이제 절적 전환의 기로에 서있다. 당면한 총장선출과제는 학자투의 절적 전환의 계기로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즉 지식적, 경제적, 사회적, 인적구조혁신의 구체적 내용성을 갖고 있으며 대학의 주인으로서 바로 서야 할 교수 학생 직원의 주체적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대학인들이 부여된 총장선출과제는 참여의 시대—주체의 시대에 걸맞은 과제이다.

이 글은 학자투의 투표종 한 가지로 설정된 동국발전의 구체적 계기로서 당면한 총장선출과제를 바라보면서, 그 선출제도의 정립을 위한 사례 분석과 함께 올바른 전망을 세우고자 한다.

2. 제도는 상황속에서 창출된다

—사례 분석—

가장 완벽하게 과거를 설명한다 하더라도 미래의 가능성을 감지할 수 없다. 아무리 훌륭한 비유적 표현이라도 사실의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선례는 타산지석 이상일 수 없으며 현실과 과거는 결국 부딪힌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 타대학의 총장선출사례를 접하면서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의 현실적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절실해진 4개 대학의 총장선출사례를 소개한다. 비슷한 시기에 총장선거를 겪은

조선훈의 총장추대사에는 전입총장의 비리와 비민주적 대학운영에 대한 대학원의 자주적 승리로 그 의의를 갖는다. 전입총장추대와 그를 비교하는 공권력과 부정 속에서 조선훈의 구성원들은 민주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총장을 추대하는 과정을 통해 학원의 자주화는 부당한 정치권력으로부터 절박하게 학원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체득하게 된다. 투쟁의 결과로서 얻어진 민주총장의 추대를 조선훈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었다. 대학의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는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였다.

연세대의 교황선출방식에 의한 교수들의 자기기간

연세대는 학교당국과 교수회의 합의에 의해 88년 7월 30일 오후 4시에 총장후보자 선거를 실시하였다. (이날은 토요일이었으며 방학중이었음) 소위 교황선출방식을 원용한 것으로 알려진 연세대의 총장선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총장선거는 우선 후보자를 뽑는 과정으로서 교수들의 예비선거와 본선거가 있다. 여기서 선출된 2인의 총장후보자가 이사회에 추천된다. 예비선거는 임후보자 5명을 뽑기 위한 2회의 투표로 나누어진다. 첫번째 투표는 각 교수가 평소 애용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인물 (임대직교수)을 한사람만 투표용지에 이름을 표기하는 단기제 투표로 실시된다. 두번째 투표는 첫번째 투표결과 선출된 임후보 2명중 19인 중에서 다시 한사람을 표기하여 5인의 임후보자를 고르는 과정이다.

본선거는 예비선거에서 뽑힌 5인의 임후보자 중에서 재단 이사회의 추천한 2인의 총장후보자를 뽑기 위한 과정이다. 본선거는 1회에 끝날 수도 있지만 결

교수들의 집단이기적이며, 보수적인 교권논리를 바탕으로 한 제도이므로 학원의 자주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극복되어야 할 선례이다.

1988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새총대학생들은 『어용·무능총장 퇴진으로 학원자주 앞당기자!』는 구호 아래 43일간의 장기절거를 벌인다. 이 과정에서 교수협의회가 장담되는데, 교수협의회 참림상에서 원후총장 퇴진으로 총장선출을 논의는 학생, 교수, 직원이 동수로 참여하는 총장추대위원회에서 총장후보를 결정하고

원회의 동의와 임인사를 전제교수회의에서 선출한다.

○기타: 원외 교수위원은 이번 총장후보에서 제외되고, 총장선출은 11월중에 마친다. 이 합의사항에 따라 새총대는 이총장추대위원회를 총장으로 선출한다. 그러나 문교부는 학생과 직원이 총장선출과정에 개입하였다는 이유로 총장추진을 거부하였다. 이것은 대학 자율화에 대한 명백한 공권력의 간섭으로서 향후 각 대학의 총장선출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려대—보수한총의 총체적 랑투임에 의한 교수직선제의 어거지 관료와 실패

작년 12월부터 교수협의회, 직원노조 및 4개 자치단체협의회 (총

발락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직원노조는 「전체의 30%가 직원으로 결성되는 결성선거인단에 의해 1인의 총장후보자 선출」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원총회와는 거지아래 독선적인 「교수들의 보수대연회」를 열어보았던 재단유학 교수들의 의해서 학내 여러 단체들의 의견은 묵살되었으며, 그 결과 단 민족사학을 자처한 고려대를 사상최대의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게 된 것이다.

3. 각 주체의 참여는 총장선출의 대원칙

대학은 기본적으로 학원 공동체 (community)이지만 현실적으로 관료체 (bureaucracy)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의 대학은 관료체적 성격이 강조되는데, 총장의 기능 또한 관료체적 개념 속에서 부여되었다.

이제 대학은 학원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으며 차기 총장의 주요한 임무는 대학을 학원 공동체로서 새롭게 가꾸어내는 일이다. 공동체 속에서 형성되는 인간관계는 인격적으로 평등하다. 교수와 학생, 교수와 직원, 직원과 학생은 공동체 속에서 평등하다. 대학은 명명하고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가 아니라 회의와 설득과 동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여야 한다. 학원 공동체의 건설, 이것은 학자투의 절호는 과제이며 그 출발점은 현실적으로 총장선출과정에 대학의 각 주체들이 참여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총장선출제도를 건설하는 과정은 지금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제기된다. 미국의 훌륭한 선출제도를 원용하거나, 타국의 선출제도를 귀감으로 삼을 수는 있다. 그러나 타국의 선출제도의 모순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선출제도는 선출제도의 모순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선출제도는 선출제도의 모순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타대학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또한 지난 7, 8월의 2차에 걸친 공청회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총장선출의 대원칙으로서 각 주체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선출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미완의 단계에 있지만 향후의 과정 속에서 다음 두가지의 방향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첫째, 현실기에서 총장선출은 학원 자주화의 중요한 과제이므로 학자투의 과정속에서 이루어지는 총장선출의 원칙을 공유해야 한다.

인물의 원칙 공유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통한 인물에 대한 심사과정이 요구된다. 즉, 교수와 학생에게는 학원공동체를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인물이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직원들은 행정의 정교함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이란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의 발전을 올바르게 추진할 수 있는 진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여론수렴과정이나 신인 (信認) 과정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반동적 보수화의 기류가 강해져 형성되고 있는 현실기에서 총장선출과제는 선출제도의 구체적 내용에서 이루어지는 총장선출의 원칙을 공유해야 한다.

선출제도에 대하여 4개자치단체협의회는 「직원노조·강사노조·조교협의회」 20명, 총학생회·대학원학생회 20명, 40명으로 총장선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이 거부한 후보를 제외하는 총장후보에서

각 주체 참여 보장은 시대의 요구

민주적 총장선출제도

향후과제와 전망



2차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 총장선출의 대원칙으로서 각 주체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학문 공동체 향한 학자투 질적 전환 계기 인물의 원칙 공유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을심을 깨트렸으며, 인적구조 혁신의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학내현안의 핵심적 과제인 총장선출과제를 절박한 과제이자 학자투의 절호를 위한 사례 분석과 함께 올바른 전망을 세우고자 한다.

선투표가 필요한 경우에는 투표를 한번 더 하게 된다. 본선거에서 각 교수는 5인의 임후보자 중 2인을 선택하며 이 투표를 하는 이들을 투표용지에 함께 표기하는 연기명방식으로 투표한다. 이에 같은 단과대학에 속하는 2인의 임후보자를 함께 적으면 무효로 된다. 이 과정을 통해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은 2인이 나올 경우 이사회에 추천하게 된다.

이름을 적어낸다는 것은 지명도에 의한 선출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간파할 수 있다. 교수사회에 지명도가 있는 인물은 보직을 맡게 되거나, 임명·파벌의 정점에서 있기 십상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총장선출을 학내에서 가장 지명도가 높은 인물을 뽑는 것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하물며 학과교정과 발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공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이 그러하다. 실제로 연세대의 선출결과 학내에서 가장 지명도가 높은 인물을 뽑는 것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하물며 학과교정과 발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공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이 그러하다.

교수전임, 학생대표 (운영위원, 각 학과장, 총대원외 상임위원) 직원 선출제도는 32명으로 구성된 총장선출추진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선출안과 인사기구인 총장추대위원회는 구성하여 총장을 선출한다는 복수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학생들의 투쟁을 총장추진위원회 직원노조에서는 총학생회와 1인교 유사한 추대위의 후보결정권 선거인단 구성을 제안하였다.

세종대는 88년 11월 19일, 총장, 이사장, 교수협의회장, 노조위원장 총학생회장 등이 「동일일인 44년 학원자주추진회」를 결성하여 「총장선출」을 제의하고 학원공동체 선출제도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이 글은 학자투의 투표종 한 가지로 설정된 동국발전의 구체적 계기로서 당면한 총장선출과제를 바라보면서, 그 선출제도의 정립을 위한 사례 분석과 함께 올바른 전망을 세우고자 한다.

연세대는 시기적으로 학생들이나 직원이 총장선출의 중요성과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들만의 총장을 선출하였다. 연세대의 사례는 하나의 그것일 수 없으며 대학 구성원들의 주체적 참여가 절실한 상황에서 교수들만의 총장선출은 공청회 즉 면은 교수들이 사립대학에서 처음으로 총장선출과정에 능동적으

교수전임, 학생대표 (운영위원, 각 학과장, 총대원외 상임위원) 직원 선출제도는 32명으로 구성된 총장선출추진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선출안과 인사기구인 총장추대위원회는 구성하여 총장을 선출한다는 복수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학생들의 투쟁을 총장추진위원회 직원노조에서는 총학생회와 1인교 유사한 추대위의 후보결정권 선거인단 구성을 제안하였다.

세종대는 88년 11월 19일, 총장, 이사장, 교수협의회장, 노조위원장 총학생회장 등이 「동일일인 44년 학원자주추진회」를 결성하여 「총장선출」을 제의하고 학원공동체 선출제도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선출제도에 대하여 4개자치단체협의회는 「직원노조·강사노조·조교협의회」 20명, 총학생회·대학원학생회 20명, 40명으로 총장선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이 거부한 후보를 제외하는 총장후보에서

이時代의 진정한良心「오스카·로메로」!!
누가 그 가슴에 방아쇠를 당겼는가?

우리는무엇을 보았는가?
그 충격의 현장에당신도있었다!

「로메로는 영혼의 존재가치를 일깨우는 「저속의 발인」이라고 할만하다.」
89년 13월 13일 조선일보 (記事중에서)

宗教마저 살해된 땅에
人間的 소리는存在하는가?
총을들고서, 眞實의 무지함과 부도덕과인간을 사살하라!!

가슴을 찢는다! 총성이 울려온다! 눈물이 가슴을 적신다!

관객들은 일어서서 절망하고있다.
映畵의 끝을 알리는 END 지만 앞에서
관객들은 눈물을 그칠수 모른다.

감독/준 두이간
로메로/리올 줄리아

10월 13일 개봉
THX 로메로 ROMERO

절찬상영중
브로드웨이

호텔롯데 개관 10주년 기념

TROPICANA
트로피카나
남국풍의 바, 레스토랑

도심에 옮겨온 남국의 정취. 꿈과 낭만이 넘치는 폴리네시아 풍의 이국적인 분위기 속에서 남국의 향기로운 과일과 빛은 독특한 카테일과 다채롭고 특이한 세계의 요리로 체험해 보십시오. 입구에 들어서시는 순간부터 이색적 경관해보지 못한 평화롭고 아늑한 기분을 느끼며 원시의 정열과 사랑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부담없는 가격, 다양한 메뉴... 바로 「트로피카나」의 매력입니다.

■트로피카나 메뉴
홍합찜전 전채요리 4종 (₩4,000~7,000)
해물탕은 쌀국수 수우프 5종 (₩2,700~4,000)
남방식 과일모듬 샐러드 3종 (₩3,000~6,000)
광어살과 조개버터구이 17종 (₩5,000~14,000)
신선한 과일모듬 후식 6종 (₩2,300~5,000)
블루하와이 등 주류 카테일 10종 (₩2,000~2,500)
블루하와이 등 주류 카테일 15종 (₩3,500~5,000)
기타 음료, 와인 등 다수 (₩1,800~)

■장 소 : 트로피카나 (1층)
■영업 시간 : 11:00~23:00
■예약 / 문의 : 전화 771-10 (교) 5164/5

호텔롯데

프랑스어

9~10월 학기 수강 접수중
개강: '89. 9. 4(月)

alliance française
MÉTHODES
Adolescents - Adultes
MÉTHODE
TELEVISUELLE
MÉTHODE
TELEVISUELLE
Nouveau/Différent/Actuel
갈리앙스프랑스어

•mauger I, II,
•sans frontières I, II, III,
•archipel I, II, III bonne route
•avec plaisir, France act, VIDEO
•traduction, thème
•Conversation libre, etc.

seoul-centre • 755-4972, 5702 (중구)
nam-seoul • 555-1125, 1126 (강남)

PUSAN: 622-3601 KWANGJU: 526-0189
TAEJU: 22-4630 DAEJON: 254-3478

alliance française
한글문화연대

평창 투쟁 사진 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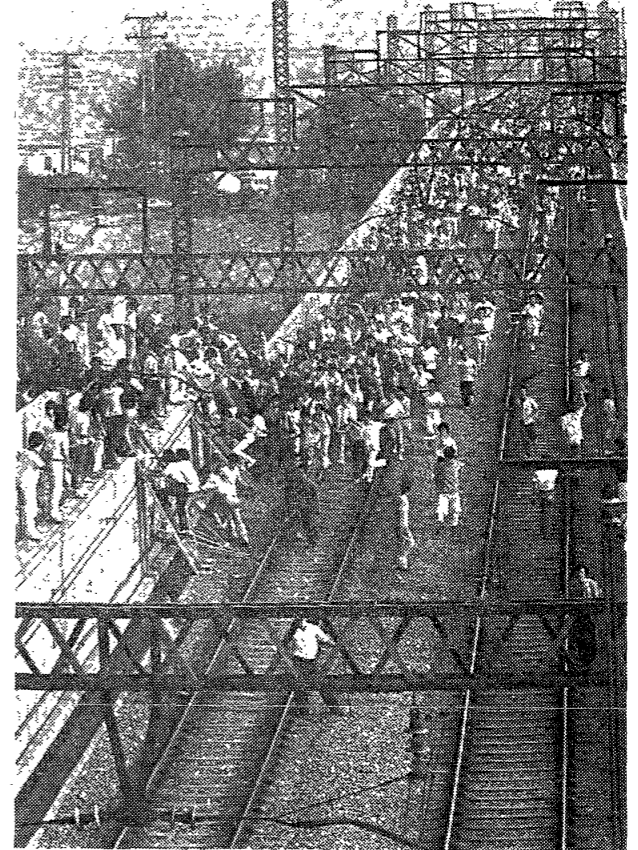
목놓아 부르는 그 만세소리, 함성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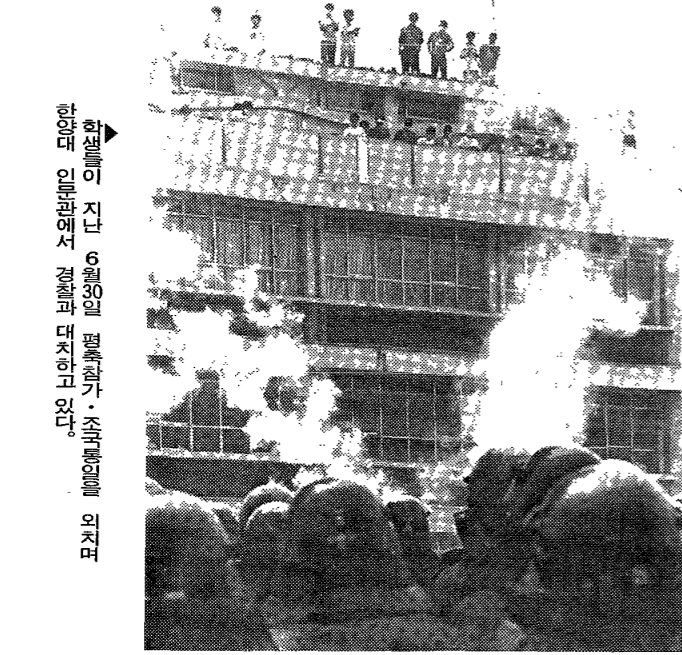
▲ 6월 20일 평창군 평창읍 평창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6.10.8.15' 30주년 기념 집회 모습



▲ 평창의 삼천리 강변을 따라 열린 '6.10.8.15' 30주년 기념 집회 모습



▲ 평창의 삼천리 강변을 따라 열린 '6.10.8.15' 30주년 기념 집회 모습



▲ 평창의 삼천리 강변을 따라 열린 '6.10.8.15' 30주년 기념 집회 모습

통일은 그 어느 때에

천하는 지금 어느 세상인가
사람과 짐승이 서로를 얹혔네
붉은 바람 미친듯 땅을 휘둘며
태평양 밀물넘쳐 하늘에 닿았네

아 — 조국의 슬픈 운명이어
한사람 손아귀에 반역자 총칼에
모두 돌아가 버렸네
평화는 자유는 평등은 어느때야 실현되는가
통일은 진정 통일은
어느때에 이루어지는가

—길 창 숙 작시, 노래에서



▲ 6월 30일 평창군 평창읍 평창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6.10.8.15' 30주년 기념 집회 모습



▲ 지난 6월 30일 평창군 평창읍 평창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6.10.8.15' 30주년 기념 집회 모습

지난해 국민적 열망속에서 폭발적으로 타올랐던 6·10, 8·15 조국통일촉진운동의 여운이 체가시기도 전에 일어난 문익환 목사의 방북 및 그성과는 45년간 막혀진 조국강토를 잇는 순결한 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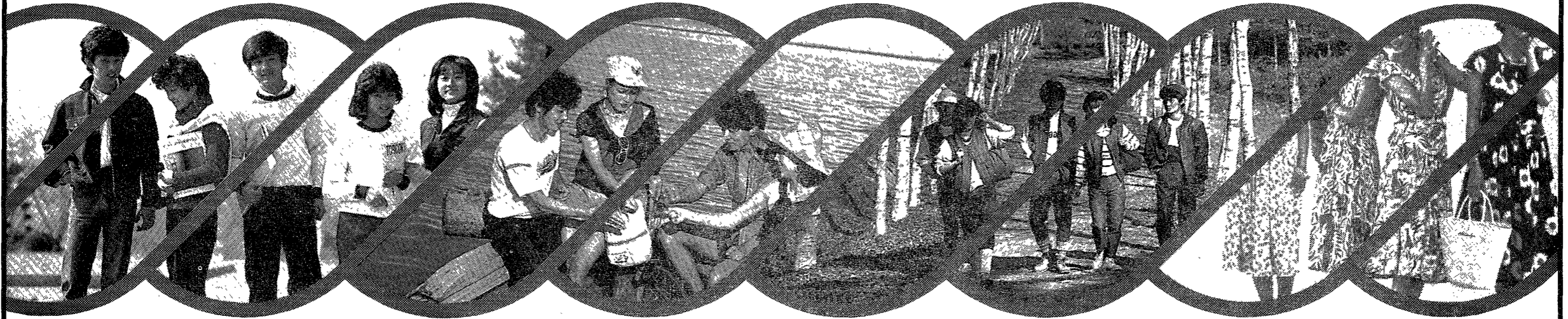
이후 계속된 통일의 열망을 모아 드디어는 남한의 청년학생 임수경양이 평양에 도착해 세계청년학생총연에 참가한것은 우리 민족민주세력이 자주외의 기초로 들어가는 쾌거였던 것이다.

임수경양이 평양에 도착하기전까지 전국각지에서는 학교별로 평창참기투쟁이 지속되었고,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회도 평창참기투쟁을 구성, 취재에 들어갔다.

◇편집자 주◇

<사진부>

태창기업의 캐주얼 복지에는 젊음이 있습니다.



경제적이며 활동적, 서구적인 캐주얼 복지를 생산함으로써 젊음들과 같이 호흡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유명리뷰메이커가 만들고 있는 캐주얼웨어의 80%가 태창기업의 바발로 원단이며 바발로 원단은 순면제품임을 보장하는 콧마크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하며 카나다, 호주, 일본 등 4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태창기업 생산원단의 종류 — 데님, 폴덴, 우단, 스트레치, 코팅물, 나염물 등

태창은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태창어상은 어려운 여건 때문에 배우지 못한 종업원들을 위한 정규과정의 고등학교입니다.

내집마련을 지원하여 사원들이 내집을 가질 수 있도록 회사와 가정의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내집짓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건강마련을 정립한 태창은 지역사회 지원으로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실천하고 체육활동을 통한 2,500여명 종업원들의 일차원 마음으로 목욕탕 열과 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장학문화사업을 위해 재단법인 일맥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전국의 초, 중, 고, 대학생 60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TCE 泰昌企業株式會社
TAECHANG ENTERPRISE CO., LTD.

본사: 부산 (051) 512-2211 ~ 8, 서울사무소: (02) 733-5935 ~ 9

미-노의 보수연합분쇄가 열쇠

I. 들어가며

서경원의원의 발족과 인수 경대표의 병합합가를 계기로 미-노일당의 민족민주운동연맹에 대한 탄압은 제5공화국 시절을 능가한 유신시대와 외견상 다를 바 없다. 서의원을 고졸한 첩첩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이대물고기공세를 강화하여 서총련, 전대협에 대한 전면적 탄압, 전교조투쟁에 대한 전면적 제발침과 보안법 적용, 도시 노점상철거 등 사회전반에 걸쳐 민주주의는 다시 파쇼적 이데올로기와 폭력으로 위구고 있으며 감옥은 또다시 양심수로 가득 메워지고 거리는 수배자 걸거로 온통 경찰장본이다.

이에 반해 민진전열은 대중의 자주적 진출에 쫓아 다닐뿐 어떠한 지도력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무기력을 극복하고 자주·민주·통일의 시대를 앞당기고자 현시기 각정치세력의 의도와 결집점을 규명하고 투쟁의 침로를 밝혀보자 한다.

2. 현시기 정치정세에 대하여

6·29이후 미-노일당은 새로운 我他역관계에 근거한 즉, 민족민주운동에 대응한 변화된 지배전술인 보수대연합을 구사하고 있다.

지배체제의 안정화는 바로 보수대연합구도의 완성 혹은 제도화이며 이는 6월항쟁 이후 일시적 전술이 아닌 중장기를 민족민주운동으로부터 분리,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궁극적으로 민민운을 거세시키려는 음모이다.

이러한 지배체제 안정화구도가 최근 박철언의 3단계 통치론(6·21, 과도기-본격 집권기-대비기)과 박준규의 3단계 정계개편론(7·5, 정계연합-정치연합-연정·정당통합) 등과 같이 노골적으로

연말까지 내각제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야당들과의 정책연합을 강화하여 90년말까지 정계개편의 가시화를 시도하기 위한 준비기이다. 즉, 그간의 노점권의 취약고지인 광주문제와 부정부리등의 5공청산 문제를 마무리짓고 그결집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정계개편(보대련의 구조화)의 가시화를 돌입하는 시기라는 뜻이다.

이미 민주, 공화당은 5공청산에 대한 일정한 타협적 합의를 이루어 내고 있고,

별적 탄압을 앞서 서술한 바 보대련의 한내용으로서 증강총과 분리시켜 민족민주운동을 고립, 무력화 시키려는 기도인 것이며 이는 단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야당의 공수, 공방전 속에서 일상적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다.

노점권의 사안별 연합, 고립전술에 놓여 나면서 야3당 공조체제는 무너지고 공화당은 제2의 민정당으로서 「새길분」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평민당은 정권과의 대



정부-평민대립...전술적 주도권다툼 경쟁 범민주 연합전선 구축주목돼

의원사건을 계기로 평민당의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한 대마작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최근 김대중의 입각과 관련이 있다.)

한편 미-노일당은 보대련의 기반, 정치사업의 포화나 의 과정으로 민족민주운동에 대하여 계획성을 지니면서도 완강하고 지속적인 물리적 탄압과 이데올로기 공세를 전개할 것이다.

이러한 이념공세(반복이데올로기, 경제위기설등)와 선

과제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투쟁의 기본축(중심고리)을 설정하고 여타의 투쟁을 여기에 배합하는 것은 투쟁의 산란성과 나열성을 극복하고 올바른 침로를 설정하는 관건이 된다.

현시기 기본축은 미-노일당의 보수대연합의 제도화(이와 일구성 부분으로 전교조, 전노협, 서총련, 전대협등 민민운에 대한 전면적 탄압과 탄압의 기초가 되는 민생안법과 국보법, 폭압기구의

남용)와 공안통치 분쇄(혹은 5공회귀분쇄) 및 5공청산과 민주화 실현의 대결로 결집점이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체화를 이루기 위해 미-노일당의 노골적인 투쟁의 한국 조국활동을 책동하는 것과 맞물려 단거적으로 PACEX로 이어지는 군사독재체제를 저지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간의 정치·군사적대결완화와 해소를 위해 반미반전투쟁(군축) 투쟁을 수행해야한다.

이들위해 청년학생들은 학교안 지지, 연대와 광주비리문제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전체적인 전선을 유지하는 정치적 선도의 임무를 수행하여야한다.

민족통일을 위한 자주교류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박철언의 방북사실을 근거로 현정권의 이윤배반적인 통일정책(정권유지를 위해 통일을 악용)을 폭로해야한다.

김 중 찬
<문과대국문과>

두개의한국책동의파열구

平祝 참가투쟁 평가



◇ 6·10일 평북참가 화상회담을 하기위해 문신에서 관문점으로 행진하는 「사촌군 결사대」

미-청와대 독재의 기본전략에 대응하여 범해운동연맹도 식민지 지배질서의 안정화 음모분쇄라는 89년 기본 정책기조를 설정, 삼반기에 보여 주었던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 기층민중들의 자주적 진출과 광주학살 5공비리 책인자 처벌 투쟁등 반독재 투쟁을 강화 발전시켜 보수대연합 구도를 분쇄해내는 투쟁노선과 두개의 한국조작 책동을 분쇄하여 민중들의 자주적 교류정착 및 평화합정 체결, 핵무기 철수를 정치·군사적인 문제를 해결, 음해를 조국통일의 선기원으로 만들겠다는 두가지 중심 축을 가지고 투쟁하게 된다.

조통투쟁...대중적 기반과 인식의 심화시급 자주교류는 군사대치 완화 촉진

이 글에서는 올해 삼반기 범양합축전을 매개로 진행되었던 조국통일운동을 축전투쟁 중심으로 평가·반성하여 이후 조국통일운동의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89년 미-노태우 일당에 의해 가속화되고있는 두개의 한국조작책동을 분쇄해 내기 위하여 첫째 88년 조국통일

운동의 성과를 계승축적하여 둘째 조국통일에 대한 대중적 기반과 인식을 심화 발전시키며 셋째 자주적교류정착과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문제해결을 밀접히 결합시켜 반미투쟁의 대중적토대 구축이라는 기본과제를 설정하여 진행되었던 축전투쟁의 전술적 목표는 첫째, 통일운

동을 국민적 이해와 요구로 발전시켜 조국통일운동을 3대 투쟁(자주·민주·통일)의 의고한 축으로 자리잡게하는 것과 더불어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한 기층민중을 통일운동의 주체로 세우기까지, 둘째 미-노정권의 기층적인 통일방안을 대중들에게 폭로하고 민중의 편에 입각한 과학적이고 평화적인 통일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동조출현을 이끌어 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공반북이데올로기를 열거하고 반미투쟁의 활성화에 부추기는 것이다.

이러한 세가지 축전투쟁의 목표를 실현해내기 위하여 화상연선이 아니라 전국민적인 투쟁, 즉 철저히 대중적으로 투쟁을 전개해내고 탄압한 정태와 대물토기를 열거, 통일의 정당성을 대국민적으로 광범위화

우선 이번 축전투쟁의 과점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자주적 교류운동과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문제의 해결과의 연관성문제이다. 자주적 교류운동은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포함한 비정치 분야의 제한 교류운동을 의미한다. 또한 교류운동의 주체는 각계각층의 민중이라는 점에서 자주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물론 정치적 분야도 문제해결의 차원이 아닌 단순한 교류차원에서 진행된다면 자주적 교류운동에 포함시킬 수 없다.

현재와 같이 같은 민족간의 대립과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어떠한 정태와 방법으로 진행되는 교류이든 지간에 자주적 교류는 엄정

개의 한국조작 책동에 악용될 소지도 안고있다.

즉 미-노정권은 남북의교류를 국가대 국가간의 교류로 전락시키며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간의 정치·군사 대결구조를 그대로 둔 채 남북간의 체제 우월경쟁을 부추기고 소위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는 수단으로 교류를 이용하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 자주적 교류운동 자체는 미-노정권의 두개의 한국조작 책동에 악용될 수는 없다.

자주적 교류를 실현함에 있어 애국민주 세력의 주체적 의지로 교류를 정취해나간다면 아무리 정권이 장구단일화라는 리드볼이 가려 할지라도 이 미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정부의 장구단일화 논리가 대결과 경쟁을 위한 교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이번 축전투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대두시켰던 자주·민주·통일 3대투쟁의 배합에 관한 문제이다.

3대 투쟁의 배합의 문제는 우리가 매개투쟁을 중심투쟁으로 전치시켜나가는가에 대한 철저한 투쟁적 관점을 끝까지 틀어쥐고 전략적 과제와 침로를 끝까지 견결하게 관철하려고 하는 의지에 근거하며 전개시켜 나가야 한다. 문독사 방북사건과 이월 규율사 진상규명 투쟁은 반미 조국통일운동의 활성화와

이를 통하여 애민단 분쇄의 발전적 전망을 내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전투쟁의 대중화, 반미투쟁과의 결합을 이루어 내지 못함으로 인해 각 투쟁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해나지 못하고 투쟁이 혼란한 문제점들을 노정시켰던 것이다.

이제 결론적으로 조국통일운동에 있어서 꼭 틀어쥐어야 할 원칙을 살펴보고 글을 마치자 한다.

첫째로 그간의 조국통일투쟁과과정에서 꾸준히 문제시되었던 주체의 문제이다. 즉, 조국통일의 주체는 청년학생 뿐만이 아니라 4천만 민중들로 굳건히 마련되어야한다. 이러한였을때만이적들의 이데올로기전환을 능히 분쇄해낼수있고 조국통일운동의 질적비약을 이루어 낼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88, 89년 삼반기투쟁의 성과에 기초하여 단순한 선전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개하고 미-노정권의 기층적 통일방안을 정확히 폭로, 과학적이고 평화적인 통일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를 해파하고 반미자주투쟁과의 과학적결합속에서 반미자주투쟁의 활성화에 부추, 즉 전략적 과제에 부추하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해야 될 것이다.

김 해 민
<자유기교>

모나미제품은 느낌이 다릅니다.

0.5mm
신제품

새로운 감각.
하얀축과 까만축이 있는
프로퍼블펜은 투명한 선축이 있어
잉크의 잔량을 확인시켜 줍니다.

모나미 프로퍼블펜
(한자루 200원)

개알만한 글씨도 예쁘게 쓸수있는 0.5mm 그리퍼볼펜! 고무 그리퍼가 있어 글씨쓰기가 부드럽고 모양과 감각이 새롭다.

모나미 그리퍼볼펜
(한자루 200원)

부드러운 고무그립

부드러운 고무그립

주식회사 모나미

동아리 생활의 문화공간

문화공간 부족... 재정적 어려움 겹쳐

문화공간의 부족은 대학문화의 발전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동아리인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학내 문화공간 확보가 시급하다.

특히 교회문화공간을 물색하여 전시회나 공연을 가져야 하는 이중적인 재정적 고충도 당하고 있다.

세계, 각 동아리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소극적 활동자세와 행사의 적극적인 참여부족이다. 동아리들의 소극적 활동자세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지고 동아리문화 활성화와 함께 주체적 대학문화 창달을 위하여 출범한 동아리연합회는 통일적인 방향성 설정과 더불어 동아리활동의 집중화 추진을 위한 대안으로서 대동제와 대동제 성격에 미치지 못하고 자체 행사에 그치고 있다.



연습장소의 부족을 절실히 느낀다. 동아리들이 하나되어 어울려

이제 제3대 동아리 연합회 창립총회(최대 3)는 『각 동아리들이 거의 모든 행사를 자체회비로 행사준비를 하고 치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올바른 대학문화의 지속적인 발전과 정서는 동아리문화가 주체라 할 수 있다. 동아리문화의 발전은 각 동아리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주체적인 참여와 고취, 내용있고 알찬 행사진행 등에서 일관되게 보여져야 한다.

올바른 대학문화의 지속적인 발전과 정서는 동아리문화가 주체라 할 수 있다. 동아리문화의 발전은 각 동아리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주체적인 참여와 고취, 내용있고 알찬 행사진행 등에서 일관되게 보여져야 한다.

올바른 대학문화의 지속적인 발전과 정서는 동아리문화가 주체라 할 수 있다. 동아리문화의 발전은 각 동아리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주체적인 참여와 고취, 내용있고 알찬 행사진행 등에서 일관되게 보여져야 한다.

변함없는 교육의 열정과 신념으로 학문의 연구와 진수에 심혈을 기울여온 한영생.

부단한 자아발전과 성실속에 잡다운 스승의 길을 걸은 박진호(영문학) 교수는 『지난날을 돌아보면 한숨과 회한이 밀려 오고 서글픈 추억의 감사의 마음만이 커다란

선의 노력을 다해온 차교수는 정년퇴임이 뜻내 아쉬운 듯 눈물을 글썽이며 『헤어질 때는 새로운 만남의 시작일 것이나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정년퇴임하오』고 말하고

러 했노라고 자부한다.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기자에게 실컷 수영과 스키, 유도를 마다하며 대학생활을 충실히 보냈던 그는 『지금도 우리학교



박진호 교수

정년 퇴임교수와 함께

동국의 공지와 전통 빛내주길...

『우리 모두가 동국의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라는 마지막 당부도 남긴다.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가게 되어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인생관을 말하는 차교수는 퇴임후에도 연구작업을 계속하는 동시에 취추잡애자가 된 장남을 돌보며 살아 가겠다고 한다.

『나이를 이정도 먹었을 때 정년퇴임을 하려니 생각했기 때문에 그저 답답하

는 한편 총무처장직을 내면 역임하는 동안 건물증축, 조경 사업 등에 전력을 기울여 지금의 동국이 있기에 기뻐한다. 동문들에 관심을 보여준 차교수는 본교 재직전에는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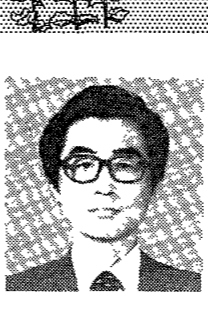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가게 되어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인생관을 말하는 차교수는 퇴임후에도 연구작업을 계속하는 동시에 취추잡애자가 된 장남을 돌보며 살아 가겠다고 한다.

『나이를 이정도 먹었을 때 정년퇴임을 하려니 생각했기 때문에 그저 답답하

는 한편 총무처장직을 내면 역임하는 동안 건물증축, 조경 사업 등에 전력을 기울여 지금의 동국이 있기에 기뻐한다. 동문들에 관심을 보여준 차교수는 본교 재직전에는 노

는 한편 총무처장직을 내면 역임하는 동안 건물증축, 조경 사업 등에 전력을 기울여 지금의 동국이 있기에 기뻐한다. 동문들에 관심을 보여준 차교수는 본교 재직전에는 노

달하나 한글 맞춤법 閑談



崔世和

한 예로, 어미인 「-는바, - (으) 나바, -인바, -던바」 등은 띄어 써야 하는 것인데, 이들이 모두 관형사형어미라 「바」 (의존명사) 가 왔고, 의존명사는 띄어 쓰라는 사설만 알아 잘못 띄어 쓰고, 어미 「-는데」와 관형사형어미 「-는」 아래 「의존명사로서의 「바」가 쓰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후자를 어미 「-는데」처럼 띄어 써서, 이를 옮겨 쓰는 이를 보기가 극히 어렵다.

『집 두 채를 짓는바, 한 채는 한옥으로 짓고, 한 채는 양옥으로 짓는다』 『사업의 성공을 축하하는 바입니다』 『비가 오는데 어더를 가려 하나?』 『책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중종 補正을 볼때, 이들의 경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어설촌 맞춤법 저술때문에, 그릇 고치고 또 바보 되고 치는 송파부족을 하며 쓴웃음을 짓는 것이 예사이다.

문화잡지

우리노동자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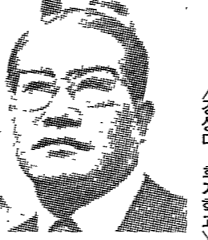
주간 전국노동자신문은 창간 기념호를 위한 노래만화방 「우리 노동자 (가칭)」을 오는 9월 9일과 10일 서울특별시 대강당에서 공연한다.

사회사진 교실개설 및 회원모집

우리마당 문화학교·영삼매 체운소는 오는 9월 10일까지 「사회사진교실 개회」에 따른 회원모집을 겸한 사진교실의 열바를 사용법과 사진이 갖는 영상언어의 특성을 소개한다.

자료전시회

경주대학교 상징권 전달을 위한 자료전시회를 오는 31일까지 도서관 4열람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상징권전달 추진회 주최로 개최한다.



趙昌華 교수

『학생들에게 좀더 친절하고 절제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퇴임소감을 밝히는 趙昌華(회계학과) 교수는 용모에서 풍기는 것이 부름을 주지 않는 포근한 인상을 준다.

노동문제에 관심 커 많은 논문 내기도... 연구소 설립해 좀더 많은 연구할터

『노동문제에 관심을 보여준 차교수는 본교 재직전에는 노

한올의 실에서 첨단반도체까지-韓-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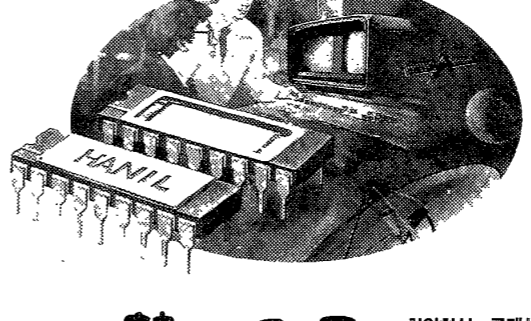
작은 뜻을 모아 큰 일을 이루는 한올그룹의 기업정신이 산업전반에 걸쳐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통해 생활을 편리하게



레저 스포츠를 통해 생활을 건강하게



첨단 전자기술을 통해 생활을 편리하게

韓-그룹

◇교교생이 교직원노조를 바라보며



우리의 스승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에겐 한가닥의 희망이 있다. 날로 어두워가는 시대에 점점 더해 가는 불만과 분노,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의 진리가 되어 가는 현실에 우리는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그 진정한 순수성과 꿈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라곤 그야말로 현실에 대처해 나

고 호탕하게 웃을 수 있는 그 얼굴도 얼룩진 사회에 묻혀 버렸다. 정말 우리에게 비굴하지 않은 용기있는 참 스승이 필요하다. 과감히 맞서 서로의 손을 흔들며 울 수 있고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하다. 우리의 스승은 어디로 갔는가? 아니면 우리의 스승인가? 아니면 우리의 스승인가? 보이는 것만 보면 가슴을 찢고 부르는 분들이 우리의 스승인가? 그렇게 했어야, 그리고 당당히 일어섰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왜 비난받고 억압되어

고 호탕하게 웃을 수 있는 그 얼굴도 얼룩진 사회에 묻혀 버렸다. 정말 우리에게 비굴하지 않은 용기있는 참 스승이 필요하다. 과감히 맞서 서로의 손을 흔들며 울 수 있고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하다. 우리의 스승은 어디로 갔는가? 아니면 우리의 스승인가? 아니면 우리의 스승인가? 보이는 것만 보면 가슴을 찢고 부르는 분들이 우리의 스승인가? 그렇게 했어야, 그리고 당당히 일어섰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왜 비난받고 억압되어

“진정 가슴을 터놓을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가기 위한 약막한 지식과 어느 정도의 술수 뿐, 가정에서 아무 것도 모르면 때에 받아오던 그 사람과는 거리가 먼 것들 뿐이었다.

입시교육이 전인교육이 되어 버리고 성적이 모든 것의 평가 기준이 되어 버린 지금은 개인의 소질과 개성은 거의 무시된 채 한 방향으론 나아 갈것을 강요받고 있다. 이러한 우리에게 진정한 교육을 위한 것들을 높이 드신 학교에 대한 부러움은 배마른 땅에 내린 한 줄기 비처럼 너무 기다리던 외침이었던 것이다. 『선생님! 현 시국에 대해 토

들이 놓는 것은 무엇이든 말인가. 그리고 우리는 보았다. 풍류가 이제 힘없이 쓰러지며 절규하시던 그 모습을. 물며 선생님이 매달려 그 모진 고통을 대신 받던 학생들.

방학전 우리에게 가장 존경받던 선생님. 언젠가는 참 교육을 이루리라 다짐하시던 그분께서 말 방향으론 나아 갈것을 강요받고 있다. 이러한 우리에게 진정한 교육을 위한 것들을 높이 드신 학교에 대한 부러움은 배마른 땅에 내린 한 줄기 비처럼 너무 기다리던 외침이었던 것이다. 『선생님! 현 시국에 대해 토

하는가? 이 사회는 진정으로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인가? 왜 내까지 못하는가. 우리에게 강한 힘과 용기가 있다. 하지만 그것을 어디서 터뜨려야 하는가.

물론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 『나는 너희들과 같이 호응하기 위해 너희들의 감정을 울려주기 위해 써주었다. 절대로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다』 하시며 젊은 발발음을 울리시던 그 모습이다. 그분이 다시 우리들위해 고백하셨다. 『나도 진한 땅을 울려 주셨으면 좋겠다』 중얼하시던 흥에. 우리는 지금 울고있다. 서러워서 억울해서..

최한기

<S고교 2학년>

경주캠퍼스 제6대 총학생회장을 만나

인터뷰

『학우들의 관심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해 가는 것이 학우들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는 말로 당선소감을 밝히는 경주캠퍼스 제6대 총학생회장 이종현(국문과 4)은.

『지난 학기 파소정권의 실각부 민정당사 타격 이후 다수 학우가 주수, 수배됨으로써 운동체계의 손상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라며 잠시 말을 끊은 이종현은 『그러므로 현정권과 독점자본가와의 일대 격전을 준비하며 투쟁조직체계를 복속하는 것 또한 병행시켜 가야 6대 총학의 임무를 다하는 길이다』라며 굳건한 의지를 천명했다.



인문대 국문과 이종현

“민주적 총장선출 학원자주 기틀”

제한다. 한편 『앞으로의 학자부는 전체 흐름에서 민주적 총장, 부총장 선출이 진정한 학원자주의 단초이므로 『동국비리의 폭로와 폭넓은 인지』 『민주총장 선거 대책 본부설치』 『관대별 각소모임 지원 강화』와 함께 대중투쟁의 토대 위에 성과물들의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부분 성공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고 차분히 설명해준다.

집위원장을 지낸바 있는 이종현은 『각종 강연 및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시민과의 괴리를 극복하는 동시에 학외연계를 비롯한 문화시설 확보에 노력해 문화성취를 하겠다』고 한 뒤 『상징적 건립을 상징적 구상으로써 동국인상을 정립하는데 헌신』 『자발적 참여를 부탁한다』며 말을 맺는다. <한>

텔레비전의 가요프로그램을 보면 『전통가요』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막연히 『전통가요』라는 말만 놓고 볼 때 이것이 전래민요를 뜻하는 건지 소위 출판가인 옛노래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외국가요에 대하여 국내대중가요를 가리키는 건지 아리송하기 짝이 없다.

다소 열중한 대비일지 모르지만 여기서 다같이 『전통』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두 인용문을 함께 읽어보기를 하자. 『얼마전부터 전통가요를 계속 하자는 움직임이 가요계를 비롯

하고 있지 못한 자명하다. 거기서 나아가 60년대 이후 가속화된 외래문화 의식의 장으로 기능하며 점점 부르조아화를 앞당기고, 대중의 사회의식과 역사의식·비판의식을 말살하면서 외래특정자본의 직접침투를 위한

활양식 총체를 일컫는 더 넓은 문화개념과 함께 구조적으로 인식할 문제이고, 궁극적으로는 미·일 등 제국주의 세력들의 문화침탈과 경제수탈이라는 『배후』와 결부된 현상이다. 이 맥락 속에서 들어 있는 문화사대주의의 경향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저해하는 경계요소이다.

문화기획

현재의 대중문화는 시대주의의 "피문아,"

하여 일반대중들에게 파급되면서 전통가요가 활성화하기 시작, 증년층에서 젊은층으로 확산, 우리가요가 가요계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 『대중가요』 4년, 현대음악출판사, 1989년 8월. 『우리가 계속해야 할 유일한 전통은 팝스·대중주의의 것일 뿐 아니라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여 투쟁한 항일유격대의 혁명전통』 『북한의 문예이론』 42면, 1975; 인종, 1989, 이상 강조점 인용.』 앞의 인용문이 말하는 전통이요한 그 글에서도 밝혀져 있듯 트로트, 세칭 볼락가요를 가리킨다. 이러한 명명법은 우리대중문화에서 나타난 전통 인식의 심도가 얼마나 천박한 것인가를 드러낸다. 팝스, 리드싱어, 콘서트 등의 용어를 아무렇게도 얽게 사용하면서, 일본유형에 가깝게 사용되고 20, 30년대 생성된 트로트계열을 굳이 전통가요라 부르는 것은, 잘못겨냥된 『우리적 전통』을 찾지 않는 심리가 상업대중문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수한 쉽게 굴절된 모습일 뿐이다.

음하는 팝가수 티파니의 써니텐 선전, 흥분배우 주윤발, 왕조현 등의 활약...의극종들이 이용한 남성 패션복 선전도 눈에 띈다. 수입상품에서부터 외국산표인까지 국내산표인지를 모를 것까지 갖가지 외국어 조어가 난무하고 기괴한 이국적 영상이 도입되고 있음은 여성주의의 광고지면을 출어 상업주의의, 여담의 문화, 몰타아·몰주체의 문화, 비극의 문화인 것이다.

가요 광고의 외래지향 문화 확산 민족적·자주적 대중문화 창출해야

정인 있다. 그리고 음반과 복제테이프를 통해 번지는 일본가요, 비디오테이프를 받은 적이 있으며, 국적불명 내지 외국가수 모방의 창법과 몸동작 역시 어찌 오늘의 현상으로 치부될 수는 없다. 75년 무렵 유신시대에 매미초사건과 더불어 급격히 양산됐을 때, 『대중문화의 무분별한 도입과 모방』 또한 심의기준의 하나였던 것이다.

문화기획

문화기획의 불모성과 맞물려 들어가면서 대중의 의식을 노예화한다. 변혁운동의 주체로 나서야 할 이 땅의 대중이 처한 이러한 현실적인 문화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목적의식적 노력이 그동안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펼쳐지는 노래운동과 현장문화, 대학문화행위의 활동이 학생대중을 넘어 광범위하게 일반대중의 생활에 침투해가는 부분이 있다.

앞에서 복안은 민중의 항일혁명투쟁의 전통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언급했거니와, 우리의 인식은 대중문화에서는 물론 민족민주운동의 시각에서도 전통의 본질, 문화적 자주성의 획득본체가 혼돈 상태에 머물러 있다.

물론 남한사회는 분단 이후 남북한과는 다른 역사와 환경을 지녔고 분단체제하에서 나름대로

말쭙기

김성일

<12>



개학, 20명만 배 잔뜩



수배되어 안방에 잔뜩 있고



상이 깨서 온 백도



머리 거베도 20명만 배

변혁운동의 지난한 과정을 개척해오고 있다. 이제 부분적으로 일기 시작한 북한의 문화상황과 그 자주적 발전의 노력은 대중속으로 더욱 침투해와 할 우리 운동의 문화부문에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가치있는 문화예술 유산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개인은 집단이든 모순에 찬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투철한 싸움 속에서만 민족의 문화, 민중의 문화가 창출되었다. 최근의 대중문화가 깊이 빠져들고 있는 외래지향, 몰주체의 현상을 깨고 자주적 문화를 건설하는 일도 변혁의 싸움 속에서 이뤄질 수 있고, 그 싸움 자체가 바로 탁월한 민중의 문화가 되는 것이다.

김이구

<문화평론가>

全國 大學生 대상 東大文學賞 작품모집. 東國의 문학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내일의 韓國文壇을 主導해갈 嶄新한 英才를 발굴하기 위해 東國의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本 社가 東大文學賞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본 『東大文學賞』이 이 땅의 精神文化를 주도해갈 가장 권위있는 大學文壇의 燈臺로써 精神文化를 기대하며 문학에 뜻을 둔 知性人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시선은 하나입니다. 모두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기업에서, 그리고 사회각각에서 하나의 목표, 다수는 이상실현을 위해 자신의 능력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공이 다르고, 분야가 다르고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어느 한곳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보다 풍요로운 사회의 건설, 안정과 단결로 성숙되어진 나라, 이념과 분열을 초월한 인류사회 이는 우리의 시선 하나하나가 새로운 의지로 미래를 향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이러한 생각들을 마음속에 지니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길 때 우리모두의 시선은 하나의 응집된 결정체로 나타날 것입니다. ■애드젠이 하는 일 ●대학신문 광고대행 ●대학홍보사업 ●대학문화 학술지인 사업 ●옥외광고대행 ●광고정보 발간 ●출판, 제작사업 ZEN ADVERTISING INC. 서울 중도구 운남동 98-78(가든리워10F) TEL: 741-1661, 2, 2185/6 FAX: 744-8973